

국립국어원 2014-01-43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54-01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김 혜 림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연구 책임자: 김혜림(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연구 기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연구 책임자 김혜림

공동 연구원 신지선, 조영주

연구 보조원 이은용, 장애리, 한미선, 박현주, 강려영, 전양주,
최효은

연구 협력 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문화용어’에 대한 번역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토대로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가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번역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화 간 경계를 허물어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번역은 필수 불가결하다. 문화 간 교류를 위해서는 번역이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한데 그간 한국 문화용어 번역은 통일된 기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같은 용어를 두고도 여러 가지 번역어가 혼재하는 등 번역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같은 장소, 같은 음식, 같은 놀이를 외국어로 각기 다르게 번역, 표기하는 것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의도하지 않게 번역 과정에서 출발어에 내포된 정보를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문화는 번역을 통해 해외에 소개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번역의 질과 완성도는 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용어 번역의 소통성, 정확성, 경제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연구 및 리서치 중심의 정성적 연구와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한 용어 선별 및 분류 중심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확정하였다. 문화용어는 한국 문화 관련 용어들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개념어’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문화 외에 외래문화에서 유래하였으나 우리 고유의 문화로 정착하고 뿌리

내린 문화 관련 용어 역시 문화용어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또한 문화용어 분류체계는 문화인류학과 번역학에서의 관련 이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층문화, 중층문화, 심층문화로 재분류하였다.

그 다음으로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누리집을 대상으로 문화용어 추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병렬 텍스트가 존재하는 한국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에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여 1차 용어를 도출하였다. 또한 정성적 기준을 적용한 2차 용어 도출, 영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문화용어 후보군 확충을 위한 3차 추가 용어 도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32개의 영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문화용어 후보군과 849개의 중국어 및 일본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문화용어 후보군을 확보하였다.

이들 문화용어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번역 실태 조사 작업에서는 문화용어와 그 용어에 대응하는 번역어를 데이터로 구축한 후, 데이터를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여 각 언어별 번역 방안을 유형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언어권별 문화용어 번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언어별 특성에 입각한 문화용어의 번역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영어 번역의 경우 총 9개 기관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932개 중 영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 778개를 추출하였다. 수집된 문화용어에 대한 영어 번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번역방식의 유형은 대분류로는 1) 음역(14.8%), 2) 의역(4.1%), 3) 음역 및 의역 병기(41.1%) 세 가지 형태가 확인되었고, 하위 유형분류의 경우에는 대응식 의미역(30.7%), 완전음역 + 설명식 의미역(15.7%), 완전음역(14.8%), 설명식 의미역(13.1%),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12.5%)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번역 유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문화용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오역으로 나타났는데 문제 유형별 비중은 정보 불충분이 42.9%, 오역이 28.6%, 표기오류가 20.6%, 혼재가 7.9%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제안할 수 있는 번역 방안은 다음과 같다. 널리 알려진 문화용어는 완전음역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음역 정보만 제공할 때 독자의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용어에 담긴 주요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역하여 제공한다.

대응식 의미역은 표층적 의미만을 번역하여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의미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 활용한다. 대응식 의미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불충분이나 정보 오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용어의 특징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설명식 의미역은 충분한 소통성은 확보되나 경제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특정 문화용어가 갖는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 요소를 번역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음역 및 의역 병기는 완전음역만으로 정보 전달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응식 의미역이나 설명식 의미역으로 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써 공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표기 오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를 제안하며, 음운 변화를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혼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기 형식의 일관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표준 시안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일 기관 혹은 기관 간에 통일된 번역어가 사용되도록 한다.

둘째, 중국어 번역의 경우 총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849개의 문화용어를 선별하였으며, 그 중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는 592개

이다. 번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나의 용어에 대해 단일 기관이 번역한 비중이 73%로 압도적으로 높고 복수 기관이 번역한 것 중 기관 간에 통일된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10.7%, 기관 간 다른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16.3%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문화용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번역 유형은 크게 한자역(47.1%), 의역(38.7%), 혼역(12.5%), 음역(1.7%)으로 구분되고, 한자역의 하위 유형에는 한자어 한자역과 한자어 대응역이, 의역의 하위 유형에는 의미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이 포함된다.

각 번역 유형에 대한 번역 방안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자역은 문화적 고유성과 소통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한자역을 하되, 문화적 고유성이 훼손되고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역 등 다른 번역 방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고유성과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음역과 음의점역을 지향한다.

의역은 번역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높아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므로,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풀어쓰기 형식의 설명식 의미역을 지양하며, 문화용어 분야 및 기능별로 의역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지향한다.

혼역은 대부분 복합어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의 구성을 갖는다. 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전부요소 번역 시 의미 전달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후부요소 번역 시 번역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역과 음의점역은 문화용어에 담긴 문화적 고유성을 원음과 의미를 결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번역 방안이다. 단, 음역 및 음의점역의 확대를 위해 중국어 음역을 위한 음역표 마련 등 관련 기준과 지침의 정립이 필요하다. 한자어와 순우리말 문화용어 중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드

러나야 하는 문화용어는 향후 마련될 음역 지침에 따라 음역과 음의결역을 제안한다. 문화용어를 음역할 때 초기에는 음역어의 이해와 보급을 위해 음역과 괄호 안 설명을 병기할 수 있으나 괄호 안 설명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음역어의 보급 및 확산에 따라 점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로마자 표기는 문화용어의 원음 표기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단독의 번역어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만약 문화용어의 원음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중국어로 음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용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번역어 앞에 ‘韩国(한국)’, ‘韩式(한식)’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유사한 대응어를 빌려 번역하거나, 한국의 것임을 강조해야 하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

셋째, 일본어 번역의 경우, 총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849개의 문화용어를 선별하였으며, 그 중 대역어가 존재하는 577개 용어를 대상으로 번역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용어에 대해 단일 기관이 번역한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고 복수 기관이 번역한 것 중 기관 간에 통일된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18.6%, 기관 간 다른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9.8%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문화용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번역 유형은 크게 한자역(53.90%), 의역(19.15%), 음역(13.96%), 혼역(12.99%)으로 구분되고, 의역의 하위 유형은 다시 대응역과 설명식 의미역으로 구분된다. 각 번역 유형은 의미 전달과 음성 소통 모두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번역 방안이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의 병기이다. 단, 설명식 의미역의 병기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음역만 제시하는 것을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수용

자의 이해를 도와 음역어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명식 의미역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자역 역시 음역을 병기하는 것만으로 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면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한다. 해당 용어가 사전에 등재되거나 해당 용어만으로 의미가 전달될 경우 설명식 의미역 없이 음역만 하도록 한다. 의역은 대응역과 설명식 의미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역 유형 모두 음역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대응역보다 설명식 의미역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도록 한다. 혼역은 대부분 복합어로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달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대한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 뒤에 병기한다.

이상과 같은 각 언어별 문화용어의 번역 실태와 번역 방안을 토대로 문화용어의 번역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중국어는 음역 기준에 해당하는 ‘한중 음역 기준표’ 마련과 음의겸역 프로세스 표준안 수립이 필요하며, 일본어는 교육부의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문화용어의 하위분야 및 기능별로 영·중·일 의역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관별로 문화용어 표준 번역을 확정함으로 기타 기관에서 동일 용어의 번역 시 확정된 표준 번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이를 돕기 위해 분야별 문화용어 사전을 편찬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핵심어: 문화용어, 음역, 의역, 대응식 의미역, 대응역, 완전음역, 설명식 의미역, 한자역, 혼역, 음의겸역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two aims: first,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ranslation of cultural terms related to the Korean people's lives and way of living, and second, to suggest measures that will help public institutions to provide translations that clearly show Korea's cultural identity and uniqueness.

Translation is an indispensable means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n spite of their indisputable value, cultural terms have been translated without well-defined standards, hence causing confusion, especially when there are multiple translations for one cultural term. Moreover, certain meanings in the source language (Korean) may be lost or unintentionally distorted in the translation process, which also can hinder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s translation is at the forefront in introducing Korean culture to the people from other countries, the quality and accuracy of cultural-term translation is of paramount importance.

Recognizing this fact, the study was conducted in an attempt to provide general guidelines to ensure that cultural-term translation is conducted in a consistent manner to better convey the specificity of Korean culture while securing communicativeness.

Cultural Terms

For the first part of the study, the definition and categories of cultural terms were determined through both literature reviews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quantitative study focused on the selection and categorization of cultural terms collected from the corpus data (details explained below). As a result, “cultural term” was defined as a conceptual word related to the Korean people’s lives and way of living. The definition was widely constructed to encompass terms from both native Korean culture and culture originally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but now entrenched in the Korean culture. Cultural term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layers, each representing the surface, middle and core of a culture, by referring to previous studies in cultural anthropology and translation studies.

Data Collection

For the second part of the research project, cultural terms were extracted from the text found on the websites of the following nine organizations: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rea Tourism Organization, Korea Foundation, Korean Folk Village, and Everland. Corpus data was selected from contents where translations (TT) in all three languages (English, Chinese, and Japanese) existed for the Korean text (ST). To extract terms, quantitative indices such as frequency and range were applied, and then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ose terms that comply with the definition determined in the study and fall into the categorization. As a result, 932 Korean terms for English translation were secured, and 849 terms each for Chinese and Japanese translations.

With these translated Korean terms as candidates for review, corresponding pairs were sought in the ST and TT and then the types of the translation methods were classified. Through analysis, the translation problems in each language were identified and transl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foreign languages were presented as follows.

Translation into English

Of the 932 Korean terms selected, 778 had English translations and translation method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ransliteration (14.8%), semantic translation (4.1%), and a combination of both (41.1%). As for sub-categories, word-for-word translation (30.7%) was the frequently used translation method, followed by full transliteration with the aid of explanatory translation (15.7%), transliteration only (14.8%), explanatory translation (13.1%), and full transliteration accompanied by word-for-word translation (12.5%).

The major problems identified in English translations include insufficient information; information bias (i.e. erroneous translation); and orthographical errors (spelling or Romanization); and inconsistent translation (within the same organization or among different institutes). Each of these problems accounted for 42.9%, 28.6%, 20.6% and 7.9%, respectively.

As for translation strategies, transliteration should be adopted in principle for cultural terms that are widely known overseas. However, if the phonetic information alone does not evoke an image or idea for the

target reader, a clear and concise semantic translation of the term has to be provided to enhance understanding.

More specifically, word-for-word translation can be used when the communicative purpose is sufficiently met, even with translation of the surface meaning only. In order to mitigate the insufficiency or error in message delivery, the essence of the term has to be well-captured and embodied in the translation.

Explanatory translation may ensure sufficient communicativeness, but the translated text could be unnecessarily wordy and lengthy. Hence, when adopting this method, the economy of words has to be considered by translating only the essential concept of the original term.

A combination of transliteration and semantic translation is recommended when the transliteration-only strategy cannot achieve the communicative goals, making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 with the aid of semantic translation. When used appropriately while also considering space limitations, this method can enhance readability and the reader's understanding.

As for orthographical problems, the system for Romanizing Korean should be followed with priority given to phonetic fidelity. Lastly, to resolve the inconsistency issue, standard style guides should be drawn up. If such standards already exist, the institute should strongly promote them so that the same translations will be used within the one organization.

Translation into Chinese

In the Chinese part of the project, out of 849 cultural terms collected from the source texts, translations were found for only 592 terms, with a whopping 73 percent translated by a single organization. Of the terms translated by multiple institutes (27%), 10.7 percent showed consistency while the rest were translated differently.

Translation method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graphological translation (based on Korean-Chinese characters, 47.1%), semantic translation (38.7%), combinatory translation (combination of various methods, 12.5%), and transliteration (1.7%). Graphological translation was further divided into word-for-word translation and substitution with an equivalent, while semantic translation was divided into the subcategories of sense-for-sense translation, replacing with a correspondence, and explanatory translation.

As for translation strategy, graphological translation can be adopted when the communicative purpose is achieved without losing the specificity of Korean culture in the translation process. When cultural specificity cannot be retained, or the intended message cannot be delivered, other methods are called for. Transliteration or “sound-meaning combination translation,” which features both meaning and phonetic closeness to the original term, is recommended when the term is deeply imbued with specific cultural connotations and value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translation.

Semantic translation tends to be highly subjective, resulting in inconsistent translation. To secure consistency, standards for this method of translation need to be established and applied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r functions of the cultural terms. When resorting to semantic translation, the translator is advised to deliver the intended meaning or message in a concise but clear manner and avoid giving lengthy explanations.

Combinatory translation is generally appropriate for compound words that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each embodying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For the specificity-part, the optimal translation method has to be selected so that the specificity of the term can be conveyed. As for the part embodying the universality of the term, priority should be given to maintaining consistency in translated terms.

Transliteration and “sound-meaning combination translation” can convey cultural specificity by featuring both meaning and phonetic closeness to the original term in its transl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se methods should be adopted when the term is profoundly associated with Korea’s cultural identity and thus calls for a translation that conveys such cultural specificity. To expand the use of these methods, related standards should be drawn up, such as a Korean-to-Chinese transliteration chart. At the initial stage, as the terms translated using these methods would be unfamiliar to the target reader, they can be followed by an explanation in parentheses to facilitate understanding and their spread through the Chinese-speaking communities. But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translated term should function on its own, and the additional explanatory part be gradually removed. Providing Romanization is recommended only as a supplementary reference to the original Korean pronunciation of the term and not to be solely provided as a translation. When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original pronunciation, it should be made a principle to transliterate into Chinese.

In translating cultural terms, the words “韩国 (Korean)” and “韩式 (Korean-style)” should be avoided in principle, unless they need to be positioned ahead of translated terms as the translation resorts to corresponding Chinese words and thus the cultural specificity of Korea should be emphasized.

Translation into Japanese

As for translation into Japanese, out of 849 cultural terms selected from the source texts, translations were found for only 577 terms, with a whopping 71.6 percent translated by a single organization. Of the terms translated by multiple institutes (28.4%), 18.6 percent showed consistency while the rest were translated differently.

Translation methods were large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graphological translation (53.90%), semantic translation (19.15%), transliteration (13.96%), and combinatory translation (combination of various methods, 12.99%). Semantic translation had the sub-categories of explanatory translation and substituting with a correspondence.

Problems with translated terms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types: the translation fails to deliver the intended message, or the Japanese pronunciation is meaningless to speakers of the language. It was found that these problems can occur either in isolation or in combination. As a solution, this study basically recommends transliteration accompanied by semantic translation in parentheses. But such accompaniment of semantic translation should be supplementary and transitional as a means to enhance the target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transliterated term and help these terms take root among Japanese speakers.

More specifically, for cultural terms that can be spelled in Korean-Chinese letters, transliteration followed by graphological translation is recommended. If graphological translation cannot deliver the intended messages, a semantic (explanatory) translation should be provided as an alternative.

When resorting to transliteration, it should be accompanied by semantic translation. But in the case of Korean terms that have been listed in Japanese dictionaries and are widely known among Japanese speakers, only the transliteration can be provided.

Correspondences can be used if there is no problem with delivering a message and should be positioned behind the transliterated term. But in the case of terms with profound cultural implications, the corresponding Japanese words should be replaced by a new explanatory translation so as to maintain Korean cultural identity.

Explanatory translation is generally adopted when there is no correspondence in the target language. If the existing explanatory translation has no problem with delivering a message, it can be used along with transliteration. If there is a problem, a new semantic translation should be provided to follow transliteration.

Combinatory translation involving multiple methods may be appropriate for compound words that can be divided into the parts of specificity and universality. In this case, transliteration should come first with semantic translation provided in parentheses for the part embodying the specificity of the source text term.

Mid- to Long-term Pla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id- to long-term plan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translation of cultural terms. In the case of translation into Chinese, a Korean-to-Chinese transliteration chart should be drawn up while the process for “sound-meaning combination translation” should be standardized. For the translation of cultural terms to Japanese, revisions should be made to the Korean-to-katakana converter prepared by the education ministry.

Also, standards for using the method of semantic translation should be drawn up to enable application according to different categories and functions of cultural terms. Government agencies are advised to follow the standards to determine the most appropriate translations of cultural terms and actively promote them so that the same translations are used in a

consistent manner. Publishing multilingual dictionaries (both online and paper-based) dealing with cultural terms can be considered as a way to achieve this.

Key Words: cultural terms, transliteration, semantic translation, word-for-word translation, substituting with a correspondence, full transliteration, explanatory translation, graphological translation, combinatory translation, “sound-meaning combination translation”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요약

1. 연구 목적

- ☐ 문화 관련 번역의 질 향상
- ☐ 문화용어 번역을 위한 데이터 제공
- ☐ 문화용어 번역 방안 제안

2. 연구 목표

- ☐ 문화용어의 정의 및 분류체계 확정
- ☐ 문화용어 데이터 수집 및 문화용어 추출, 관련 자료 구축
- ☐ 문화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 ☐ 문화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방안 제안

3. 연구 실행 개요

- ☐ 연구기간: 2014. 7. 30. ~ 2014. 12. 27.
- ☐ 연구발주처: 국립국어원
- ☐ 연구진: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김혜림 외 9명)

4. 연구 내용

- ☐ 문화용어 정의와 분류체계 확정을 위한 정성연구
 - 문화인류학적, 번역학적 관점에서의 문화에 대한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 조사대상 9개 기관(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누리집,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사전 및 서적 분석
- ☐ 문화용어 정의와 분류체계 확정을 위한 정량연구

- 9개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자료 수집
-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우리문화 길라잡이』를 참고한 문화용어 선별
- 문화용어 데이터 수집 및 구축

- ☐ 번역 실태 조사
- ☐ 문화용어와 번역어의 데이터 구축 및 분석
- ☐ 언어별 문화용어 번역의 유형화
- ☐ 언어별 문화용어의 번역 방안
- ☐ 문화용어 번역의 중장기 계획안

5. 연구 결과

- ☐ 문화용어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의 확정
 - 문화용어의 정의: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개념어’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문화 외에 외래문화에서 유래하였으나 우리 고유의 문화로 정착하고 뿌리내린 문화 관련 용어 역시 문화용어의 범주에 포함
 - 분류체계의 확정: 문화용어 도출 결과를 참고하여 유형과 무형으로 이분화한 분류 체계를 문화인류학 및 번역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표층 문화, 중층문화, 심층문화로 재분류
- ☐ 데이터 수집 및 문화용어의 추출
 - 데이터 수집: 9개 기관에 대해 각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병렬 텍스트가 모두 존재하는 한국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원문 텍스트 자료 수집(총 1,431,461자)
 - 문화용어의 추출
 - 정량적 기준에 따른 1차 용어 추출(워드스미스 활용)
 - 정성적 기준에 따른 2차 용어 추출

- 3차 추가용어 추출 (영어 번역문만 있는 원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추가용어 확보)

□ 언어별 문화용어의 번역 실태 조사 및 유형 분석

- 총 9개 기관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문화용어와 대역어 추출
- 영어 번역 실태: 총 932개 중 영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 778개 추출
 - 음역, 의역, 음역 및 의역 병기 세 가지 유형 확인
 - 하위 번역 유형으로는 대응식 의미역, 완전음역+설명식 의미역, 완전음역, 설명식 의미역, 완전음역+대응식 의미역 유형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
- 중국어 번역 실태: 총 849개 중 중국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 592개 추출
 - 한자역, 의역, 음역, 혼역의 네 가지 유형 확인
 - 한자역의 하위 번역 유형은 한자어 한자역, 한자어 대응역이 있으며, 의역의 경우 의미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이 하위 번역 유형으로 나타남.
- 일본어 번역 실태: 총 849개 중 일본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 577개 추출
 - 한자역, 의역, 음역, 혼역의 네 가지 유형 확인
 - 이 중 의역의 하위 범주는 대응역과 설명식 의미역으로 나타남.

□ 언어별 문화용어의 번역 방안

- 영어 번역 방안: 완전음역, 대응식 의미역, 설명식 의미역, 음역 및 의역 병기 유형에 대한 번역 방안

- 완전음역: 널리 알려진 문화용어
- 대응식 의미역: 표층적 의미만 번역하여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의미 유추가 가능한 경우
- 설명식 의미역: 충분한 소통성은 확보되나 경제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춤
- 음역 및 의역 병기: 완전음역만으로 정보 전달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응식 의미역이나 설명식 의미역으로 정보 보완

◦ 중국어 번역 방안 제안: 한자역, 의역, 혼역, 음역 유형에 대한 번역 방안

- 한자역은 문화적 고유성과 소통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가능
- 의역은 번역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높아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므로,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 전달을 지향하며 풀어쓰는 설명식 의미역은 지양
- 혼역은 복합어가 대부분이므로 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번역 방안을 모색, 후부요소는 번역어의 통일성을 지향
- 궁극적으로 음역과 음의겸역 방안 제안, 중국어 음역을 위한 음역표 마련 등 관련 기준과 지침의 정립 필요

◦ 일본어 번역 방안 제안: 한자역, 의역, 음역, 혼역 유형에 대한 번역 방안

- 한자역은 의미 전달이 가능한 경우 음역과 병기하고,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 병기
- 의역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고 문화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역과 병기하고, 의미나 문화의 고유성 전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 병기

- 음역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면 음역만 표기하고,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 병기
- 혼역은 전달해야 하는 주요 의미 부분에 대한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 뒤에 병기
- 궁극적으로는 음역 지향

□ 문화용어 번역의 중장기 계획안

- 중국어와 일본어로의 번역을 위한 음역 기준 수립
- 중국어 음의검역 표준 프로세스 마련
- 문화용어의 분야별, 기능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의역 표준 프로세스 마련
- 분야별 문화용어 사전의 편찬

목 차

I.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4
2.1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확정을 위한 정성연구	4
2.1.1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문화’ 정의 및 분류체계	4
2.1.2 번역학적 관점에서의 ‘문화소’, ‘문화’ 정의 및 분류체계	8
2.1.3 각 조사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본 문화의 정의 및 분류체계	15
2.1.4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사전 및 서적의 분류 체계	22
2.2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확정을 위한 정량연구	25
2.2.1 데이터의 수집과 구축	25
2.2.2 문화용어의 선별 기준	25
2.3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27
III. 데이터 수집 및 문화용어 추출	30
3.1 텍스트 데이터 수집	30
3.2 문화용어 추출	32
3.2.1 문화용어 후보군 추출	32
3.2.2 번역 실태 조사	35
IV. 각 언어별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	37
4.1 문화용어 영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	37
4.1.1 문화용어 번역 실태 조사 결과	37
4.1.2 문화용어 번역 유형	44
4.1.3 번역 유형별 분석	49
4.1.4 문화용어 번역 방안 제안	58
4.2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	63

4.2.1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조사 결과	63
4.2.2 문화용어 번역 유형	71
4.2.3 번역 유형별 분석	74
4.2.4 번역 방안 제안	83
4.3 문화용어 일본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	89
4.3.1 문화용어 일본어 번역 실태 조사 결과	89
4.3.2 문화용어 번역 유형	95
4.3.3 번역 유형별 분석	97
4.3.4 문화용어 번역 방안 제안	108
 V. 문화용어 번역 중장기 계획안	 114
 VI. 결론	 116
 참고문헌	 121
<부록> 번역 문제가 나타난 문화용어 목록	124

표 목 차

<표 2-1> 인류학적인 관점에서의 문화 구조 및 차원	8
<표 2-2>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의	17
<표 2-3>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	18
<표 2-4>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정의 및 유형	20
<표 2-5> 한국 문화 관련 사전 및 누리집의 분류체계	22
<표 2-6> 한국 문화 관련 서적의 분류체계	24
<표 2-7> 문화용어 1차 분류체계	26
<표 3-1> 문화용어 후보군 추출을 위한 정량 분석 척도	32
<표 4-1> 문화용어 영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37
<표 4-2> 번역 문제 유형의 개념 설명과 예시	38
<표 4-3> 대분류에 따른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	44
<표 4-4> 번역 유형 개념 설명과 예시	45
<표 4-5>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	48
<표 4-6>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63
<표 4-7> 번역 혼재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65
<표 4-8> 번역 통일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68
<표 4-9>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	71
<표 4-10> 번역 유형 개념 설명과 예시	73
<표 4-11> 문화용어 일본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89
<표 4-12> 번역 혼재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91
<표 4-13> 번역 통일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93
<표 4-14>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	95
<표 4-15> 번역 유형 개념 설명과 예시	96

그림 목 차

<그림 2-1> 나이다의 문화범주	11
<그림 2-2> 케이탄의 문화 범주	12
<그림 2-3> 하팀의 문화 정의	14
<그림 2-4> 문화용어 분류체계	28
<그림 3-1> 정량적 기준에 의한 후보 용어 도출 화면	33
<그림 3-2> 워드스미스 어휘 목록(WordList) 도출 화면	35
<그림 3-3> 번역 실태 조사 작업 화면	36

I.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류 열풍을 시작으로 세계 각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수 또한 증가일로에 있어 한국의 문화를 적극 알리고 홍보할 때이다. 문화 간 경계를 허물고 이문화를 전파하는데 번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간 한국 문화를 번역하는 데는 통일된 기준 없이 번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같은 용어를 두고도 여러 가지 번역어가 혼재하는 등 번역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장소, 같은 음식, 같은 놀이를 각각 다르게 번역, 표기하니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의도하지 않게 번역 과정에서 출발어에 내포된 정보를 생략하거나 왜곡하여 의사소통에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문화는 번역을 통해서 해외에 소개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문화 관련 번역의 질과 완성도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국립국어원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는 문화용어 번역의 소통성, 정확성, 경제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문화용어 번역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번역의 특성상 유일한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 텍스트의 맥락, 상황, 기능, 대상독자 등에 따라 적절한 번역의 정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번역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문화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각 언어별로 문화용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번

역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문화용어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확정하여 번역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틀을 확정한다. 둘째, 첫 번째 단계에서 확정한 분류체계를 토대로 문화용어의 번역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구축한다. 셋째, 구축한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문화용어의 번역 방안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도출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파악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향후 번역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번역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선 문화용어를 정의하고 분류 체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량 및 정성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분류 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정성 연구로 문화인류학적 관점과 번역학적 관점에서 문화를 각기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였는지 살펴보고, 각 조사대상 기관별 누리집과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사전 및 서적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분류 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정량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9개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이 자료에서 용어의 출현 빈도와 기관별 분포를 분석하고, 국립국어원 누리집과 『우리문화 길라잡이』에 소개된 기초용어 목록을 참고하여 문화용어를 선별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용어를 정의하고 분류 체계를 확정 한 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병렬 텍스트가 모두 존재하는 한국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정량적 기준에 따라 1차 용어를 추출하고 정성적 기준에 따라 2차 용어를 추출, 용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영어 번역문만 존재하는 텍스트를 대상으

로 3차 추가 용어를 추출한다.

용어 추출 과정이 완료되면, 수합한 용어를 대상으로 번역 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한다. 우선 각 문화용어와 그 용어에 대응하는 번역어를 데이터로 구축한 후, 데이터를 질적, 양적으로 분석하여 각 언어별 번역 방안을 유형화한다. 이로써 현재 한국의 문화용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할 때 번역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언어별 특성에 따라 문화용어의 번역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II.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II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연구대상인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문화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문헌 연구와 리서치 그리고 조사기관 누리집에서 수집한 말뭉치에 대한 양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용어의 분류체계를 확정하였다.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의 확정을 위해 관련 이론 분석 중심의 정성 연구와 수집된 말뭉치 대상의 정량 분석이 교차적으로 병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1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확정을 위한 정성연구

본 연구보고서에서 사용될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확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문화인류학과 번역학 분야에서의 문화, 문화의 세부 분류체계, 문화소, 문화 관련 어휘 등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 분석을 통해 각 기관별 문화에 대한 정의 및 하위 분류체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외에 한국문화와 관련된 사전 및 서적의 분류체계와 목차 등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문화용어의 정의 및 분류체계 확정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2.1.1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문화’ 정의 및 분류체계

○ ‘문화’의 정의

문화인류학에서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크게 총체론과 관념론적 정의

로 구분한다.¹⁾ 문화에 대한 총체론적 정의는 말 그대로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축적된 도구, 기술, 사회조직, 언어, 관습 등의 생활방식의 총체로서 문화를 정의한다. 가장 대표적인 총체론적 정의는 문화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정의라 불리는 인류학자 타일러(E.B.Tylor)의 정의로 그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로 정의하였다(홀 2000a: 47).

반면 관념론적 정의는 가시적으로 관찰되는 도구나 행동 및 제도 등은 문화로 간주하지 않고, 행동을 유도하는 지배적인 규칙과 기준인 관념과 개념 체계만을 문화로 간주한다. 가장 대표적인 관념론적 정의는 구디너프(Goodenough)의 문화 정의로 그는 “문화는 물질적인 현상, 즉 단순한 사물, 인간, 행동,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현상들의 조직체”라고 주장한다. 즉 문화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물들의 형식인 동시에 그러한 사물들을 지각하고 관련짓고 해석하는 모형이라고 정의한다(Goodenough 1964: 36, House 2006: 349 재인용).”

○ 문화 분류체계

문화인류학에서는 위와 같이 문화에 대해 총체론 및 관념론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 외에 문화의 하위 차원을 나누어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에드워드 홀(Edward T. Hall)의 ‘문화의 세 차원’, 데이비드 A. 빅터(David A. Victor)의 빙산이론과 폰즈 트롬페너스(Fons Trompennars)의 양과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한상복 외. 1985, 64-65.

- 에드워드 홀의 ‘문화의 세 차원’

에드워드 홀은 오랜 기간 미국인의 시간 사용 패턴을 관찰하면서 공식적, 비공식적, 기술적 시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식적 시간은 누구나 알고 당연히 여기며 일생 생활에 적용되는 시간이며, 비공식적인 시간은 ‘잠시’, ‘나중에’, ‘금방’ 등 정확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 적당히 사용되는 시간, 기술적인 시간은 과학자나 기술자에 의해 사용되는 시간으로 비전문가에게는 용어조차 낯선 시간이다. 그는 위와 같은 시간의 세 가지 차원을 문화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에드워드 홀 2000a: 99). 공식적 차원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든 ‘올바른 것,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본능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머지 문화의 기초를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문화의 변화는 더디며 거의 인지되지 않는다. 어조, 계급구조, 신념체계, 개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비공식적인 문화는 한때 배운 적이 있으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태도 등을 의미하며, 문화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몸짓과 경제구조, 사회계급 및 놀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술적 차원의 문화는 철저하게 의식된 행동을 바탕으로 하며 말과 글로 기록되어 체계적인 교육과 전수가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쉽게 관찰된다. 언어, 직업, 복장, 정부, 과학 등이 여기에 속한다(에드워드 홀 2000a: 100-139).

- 데이비드 A. 빅터의 ‘빙산이론’

데이비드 A. 빅터의 ‘빙산이론’은 문화를 빙산에 비유한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문화를 접할 때 가시적으로 관찰되는 문화적 차이는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처럼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수면 아래 더

깊은 곳에 근본적인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빙산이론 역시 문화를 수면 위의 표면층(surface)과 수면 아래 중간층(unspoken rules)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무의식층(unconscious rules)으로 나누어 세 가지 층위로 설명하고 있다. 표면층은 가시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의식적인 수준에서 쉽게 표현 가능한 문화 영역이며, 중간층은 인지는 하고 있으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의 가치와 기준 등을 포괄하는 추상적인 문화 영역이고, 무의식층은 잠재의식 속에 위치하여 인지와 표현이 불가하고 단지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문화영역으로 규정한다(김성만 2010: 31-32).

- 폰즈 트롬페너스의 ‘양파모형’

폰즈 트롬페너스의 ‘양파모형’에서도 문화의 구조를 외층부(out layer), 중간층(middle layer), 핵(core)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 층위로 설명한다. 외층부가 포괄하는 것은 물질문화로 언어, 건물, 패션, 음식, 미술 등이 포함된다. 중간층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적법과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를 의미하며, 핵은 인간 본연의 사고에 가장 근접한 문화 영역으로 규정한다(김성만 2010: 33-34).

위 세 학자의 문화구조는 모두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며 각 차원은 관찰 가능성, 추상성, 의식성(이건표 2004, 김성만 2010: 34 재인용)의 수준에 따라 구별된다. 표층에 속한 문화일수록 관찰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의식적인 수준에서 표현 가능한 반면, 문화의 심층으로 다가갈수록 관찰과 언어적 표현이 불가하며, 추상적이고,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행동으로만 표현되는 특징을 갖는다(김성만 2010: 34).

<표 2-1> 인류학적인 관점에서의 문화 구조 및 차원

학자	문화 구조	문화 차원 및 구성요소
에드워드 홀	문화의 세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 차원-어조, 계급구조, 신념체계, 개념 등 · 비공식적 차원-몸짓과 경제구조, 사회계급 및 놀이 등 · 기술적 차원-언어, 직업, 복장, 정부, 과학 등
데이비드 A. 빅터	빙산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층-구체적, 관찰 및 표현 가능. · 중간층-추상적, 인지하고 있으나 표현 불가능. · 무의식층-매우 추상적, 인지와 표현 모두 불가능하며 행동으로만 표출됨.
폰즈 트롬 패너스	양과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층부-언어, 건물, 음식, 미술 등 관찰 가능한 인공물. · 중간층-선과 악 및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규범 · 핵-인간 본연의 무의식적 사고 체계

2.1.2 번역학적 관점에서의 ‘문화소’, ‘문화’ 정의 및 분류체계

○ 문화소 및 문화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 김효중

“어느 특정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어느 언어권의 모든 문화적, 사회, 경제적 소여성(所與性)을 일컫는데, 언어의 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 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 등도 여기에 속한다(김효중 2004: 37).”

- 이근희(2005)

이근희는 문화 관련 어휘에 대해 “원천언어를 사용하는 사회공동체의 역사, 사회, 정치, 경제, 언어관습 등을 둘러싼 고유하거나 특정 문화에서 비롯되는 어휘”로 보고, 이에 속하는 어휘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 (1) 고유명사: 특정 인물이나 건물, 조직, 단체, 저서 등의 이름과 관련된 어휘
- (2)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의식주, 지역, 사회, 관습 등과 관련된 어휘
- (3) 특정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어휘
- (4) 관용어: 관습적으로 쓰이는 속담, 유행어, 은어, 관용구 등과 관련된 용어
- (5) 도량형 단위: 화폐, 거리, 높이, 중량

- 스톨제(R. Stolze)

스톨제는 원어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다 알지만, 역어 문화권에서는 생소한 요소, 원어 문화권에서는 어떤 특정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데 역어 문화권에서는 전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거나, 반대로 원어 문화권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되지만 역어 문화권에서는 특정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텍스트적 요소를 ‘문화소’라고 정의한다(김효중 2004 : 39 재인용).

○ ‘문화’의 정의 및 분류체계

인류학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크게 총체론적 정의와 관념론적 정의로 구분하고 있으나, 번역에서 문화를 정의하고 논하기 위해서는 총체론적 정의가 더 적합하다(장애리 2011 : 7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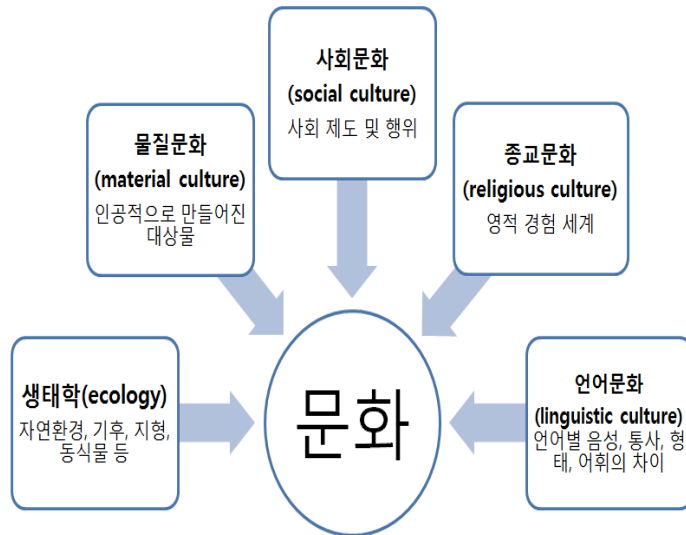
● 나이다(E. Nida)

나이다(1964)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의 의미 도출과 텍스트 맥락의 파악을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에 접근하였다. 나이다는 번역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번역 문제가 야기되는 영역을 생태학(ecology),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사회문화(social culture), 종교문화(religious culture), 언어문화(lingual culture) 다섯 개 범주로 제시하였다.

- (1) 생태학: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상태. 즉, 기후, 지형, 동식물 등 인간이 생존하고 문명을 만들어 가는 터전인 자연환경을 뜻한다.
- (2) 물질문화: 문명의 발전에 따라 만들어진 인위적 가공물을 대상으로 한다.
- (3) 사회문화: 사회적 제도와 행위를 포괄하는 범주를 말한다.
- (4) 종교문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우주관과 세계관, 사람의 방식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 (5) 언어문화: 서로 다른 언어의 특징으로, 언어의 음성, 형태, 통사, 어휘 등이 포함된다.

이 범주에 대한 설명은 <그림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1> 나이다의 문화범주²⁾



- 케이탄(D. Katan)

케이탄은 통번역을 서로 다른 문화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로 바라보고,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따라서 그의 문화에 대한 정의와 틀은 기본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문화인류학자 홀(2000a)의 문화 개념에 기대어 있다. 케이탄은 홀이 빙산모형을 통해 제시한 기술적 문화(Technical culture), 공식적 문화(Formal culture), 비공식적 문화(Informal culture)로 구성된 문화의 세 가지 차원을 통번역의 관점에서 문화를 개념화하는 틀로 활용하고 있다.

2) 출처: 장애리 2011: 75

(1) 기술적 문화

‘발전된 문명’으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과 비즈니스 관련 용어 및 기준 등을 들고 있다.

(2) 공식적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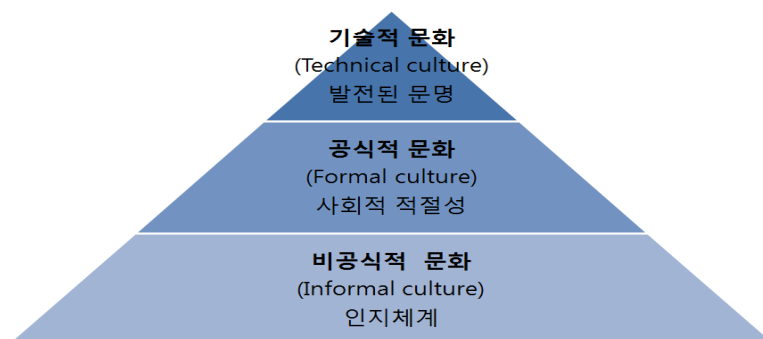
기능주의에 기반한 적절성에 초점을 두는 문화로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 볼 수 있으며 관습, 생활방식, 사회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3) 비공식적 문화

하나의 인지체계로서 특정 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 세계관과 신념, 핵심적인 가치 등을 뜻하며, 학교와 가정 및 미디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고정되고 내재화된 실재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 of reality)을 포함한다.

케이탄의 문화 범주에 대한 구분은 다음의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2> 케이탄의 문화 범주³⁾



3) 출처: 장애리 2011: 77

- 하팀(B. Hatim)

하팀은 기호학적 관점에서 통번역과 문화의 관계를 고찰하고 통번역 수행과정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단위는 대상으로서 관찰되는 기표가 아닌, 기표 뒤에 숨겨진 궁극적 의미이며 이는 모든 텍스트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를 결과물(product), 행위(practice), 관점(perspective)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 (1) 결과물

사람 혹은 특정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용 및 채택된 산물로서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도구, 문서, 건물, 음식, 의복에서, 감각적으로 더욱 정교한 지각을 필요로 하는 언어, 음악, 교육, 가족, 경제, 정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동식물 등 (자연)환경까지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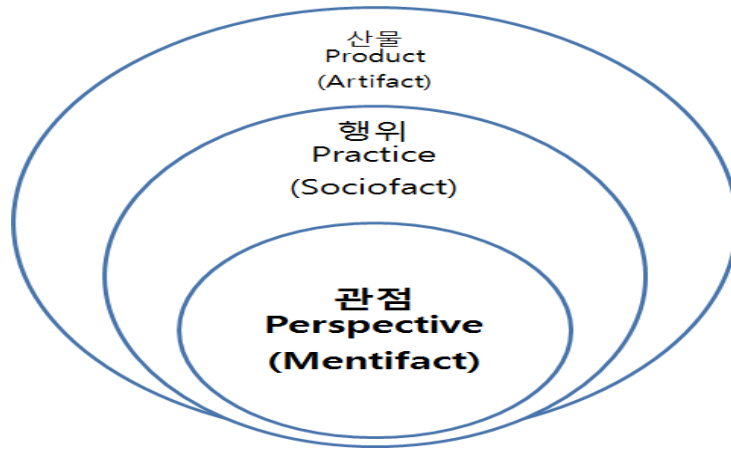
- (2) 행위

한 문화권에 속한 구성원의 개인적인 행위 혹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특정한 방식의 생활양식, 사회적 규범에 의거한 일반적인 행위와 사회구성원들과 관련된 의사소통적 사건을 포함하는 사회적 사실(sociofact)이다.

- (3) 관점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지각과 가치, 신념,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적 산물인 결과물을 창조하는 배경이 된다. 또한 특정 문화적 행위를 유도하고, 모든 사물과 행위 등에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관과 삶의 철학으로 정신적 사실(mentifact)을 뜻한다.

<그림 2-3> 하티의 문화 정의⁴⁾



- 뉴마크(P. Newmark)

뉴마크는 문화의 범주를 (1) 생태, (2) 물질문화(음식, 의복, 집과 마을, 운송수단), (3) 사회문화(일, 레저 등), (4) 몸짓과 습관, (5) 조직, 관습, 행동, 과정, 개념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최희섭 2010: 273, Newmark 1988 : 94-95 재인용).

4) 출처: 장애리 2011: 79

2.1.3 각 조사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본 문화의 정의 및 분류체계

본 연구에서는 ‘문화’ 및 ‘문화용어’의 정의, 그리고 문화 분류 체계 확정을 위해 다음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누리집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가나다순).

- 중앙행정기관(5곳):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 정부투자기관(2곳):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 민간 시설(2곳):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 한국국제교류재단(코리아나)

● **‘문화’의 정의:** 한국국제교류재단 발행지 <Koreana>의 경우, 해당 잡지의 소개란에 “1987년 창간된 문화예술 잡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발행하는 문화예술 종합잡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국문화의 독창성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잡지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이 문구들을 통해서 문화가 특정 국가, 민족, 국민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문화란 특정 국가 혹은 민족(국민)을 정의할 수 있는 추상적이면서 실질적인 개념으로, 그 전제 조건으로 문화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이 독창성(originality)과 차별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분류 체계:** “생활양식, 문화유산, 자연환경, 문학작품, 인물 등을 소개하는 문화예술 종합잡지”라는 소개 문구를 통해서 해당 잡지의 관점

에서 문화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한국민속촌

● **‘문화’의 정의:** 해당 누리집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국민속촌은 “오랜 시간을 거쳐 전승되어 온 우리 문화 속 생활풍속을 한데 모아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민족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이러한 소개 문구를 통해서 한민족을 규정할 수 있는 민족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본 기관의 대내외적 설립취지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특정 민족을 규정할 수 있는 독창적인 생활풍속이 문화를 정의하는 범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 **분류 체계:** 기관 소개의 글에는 문화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이 어떤 것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여럿 존재한다. 우선 “생활문화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만나는 체험형 전시와 전통방식을 계승한 생활 공예, 절기별 세시풍속을 행하며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유산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그 예이다. 이외에도 전시관 소개의 글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세시풍속과 관혼상제, 의식주 생활, 민속놀이, 생업도구와 같은 유형의 물질자료, 농요와 같은 구비전승자료, 놀이와 같은 행위전승 자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그 의미와 기능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총체적으로 재현·전시한 점이 특징입니다.” 등의 문구들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문화를 구성하는 하위분류에 생활 공예, 절기별 세시풍속, 관혼상제, 의식주 생활, 민속놀이 등을 두고, 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생활문화’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문화재청

해당 기관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문화재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의 정의 및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문화’ 정의에 접근할 수 있다.

● **‘문화재’의 정의:** 조상이 남긴 유산으로 삶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 고적답사를 가면 볼 수 있는 성곽, 옛 무덤, 불성이나 불탑, 그리고 옛 그림, 도자기, 고서적 등의 유형문화재와 판소리, 탈춤과 같이 형체는 없지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무형 문화재가 있다. 또한 자연유산으로서 일상생활 및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중요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여 문화재에 포함하기도 한다.

● **문화재 유형 분류:** 해당 누리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재를 정의 및 분류하고 있다.

<표 2-2>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금관총 금관	종묘제례	몽촌토성	영천정재영씨 가옥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	- 성곽, 옛 무덤, 궁궐, 도자기 가마터 등 사적지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학술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

큰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적, 경관적 가치 가 큰 것 - 동물, 식물, 광 물, 지질, 동굴, 특별한 자연현상 등 생성물로서 역 사적, 예술적 또 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우리만의 생활사 가 갖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전통 적인 생활사의 추 이를 이해함에 있 어서 그 가치와 의미가 인정되는 것
------------------------	--	---	--

<표 2-3> 문화재청의 문화재 유형

분류	세부사항
유적 건조물	1) 주거생활: 주거지, 주거건축, 조경건축, 근대주거 2) 정치국방: 궁궐, 관아, 성, 전적지, 근대정치국방 3) 교통·통신: 교통, 통신, 근대교통, 통신시설 4) 교육문화: 교육기관, 근대교육문화, 수중유물산포지, 유적분포지 5) 무덤: 무덤, 왕실무덤, 근대무덤 6) 산업생산: 농업, 어업, 염업, 제조업, 요업, 광업, 근대, 산업생산 7) 종교신앙: 불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 민간신앙 8) 인물사건: 인물기념, 근대인물
유물	1) 일반회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화조화, 사군자, 근대회화 2) 기타종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3) 불교조각: 석조, 금속조, 목조, 건칠조, 소조 4) 생활공예: 목공예, 칠공예, 화각장공예, 초고공예, 지공예, 도자공예, 금속공예, 복식공예, 근대공예 5) 기타종교, 공예: 유교공예 6) 불교회화: 괘불화, 탕화, 판화, 사경화, 벽화 7) 일반조각: 암벽조각, 능묘조각, 근대조각 8) 기타종교, 조각: 유교조각, 민간신앙조각

	9) 불교공예: 의식법구, 공양구, 장엄구, 사리장치, 복장품, 기타 10) 과학기술: 선사유물, 자연과학유물, 생업기술용구, 천문지리기구, 계측교역용구, 이동운송기술, 공예기술용구, 음식제조용구, 인쇄기술용구, 놀이, 유희용구, 무기병기류
기록유산	1) 전적류: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2) 서간류: 서예, 간독류, 시고류, 탁본류, 근대서간류 3) 근대매체: 시청각류 4) 문서류: 국왕문서, 관부문서, 민간문서, 사찰문서, 서원 향교문서 5) 서각류: 목판각류, 금석각류, 근대서각류
무형유산	1) 전통연행: 음악, 무용, 연희, 놀이, 의식, 무예 2) 음식제조: 궁중음식, 의례음식, 민가음식 3) 공예기술: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칠공예, 섬유공예, 피모공예, 지공예, 석공예
자연유산	1) 천연기념물: 문화역사기념물, 생물과학기념물, 지구과학기념물 2) 명승: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 3) 천연보호구역: 문화 및 자연 결합성, 자연과학성

○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 포털 E뮤지엄)

전국 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보물, 주요 지정문화재 등 소중한 국가 문화 유산정보를 통합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검색 경로는 “박물관 포털 e뮤지엄 > 우리문화 이야기 > 알아보시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문화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누리집으로서 구체적인 문화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재가 한국 문화의 한 축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은 어렵지 않다.

해당 누리집에는 다음과 같이 국보 및 문화재에 대한 정의, 카테고리,

구체적인 문화재 명칭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2-4>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정의 및 유형

정의	세부사항
국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조건축 - 탑 - 부도 - 불상 - 기타석조물 - 탈 - 전적 및 회화 - 토기 및 자기
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정 문화재 :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 시·도 지정 문화재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 문화재자료 - 등록문화재 - 비지정문화재

유물을 테마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문화의 하위분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의/식/주
- 산업/생업
- 교통/통신
- 과학/기술
- 사회/생활
- 종교/신앙
- 문화/예술

- 군사
- 기타

해외문화홍보원과 에버랜드 및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누리집에는 문화나 문화용어 관련 정의 및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2.1.4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사전 및 서적의 분류 체계

본 연구에서의 문화용어 분류체계 확정을 위해 한국 문화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사전의 표제어 분류 목록과 관련 서적 및 누리집 등의 목차와 분류체계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전류

<표 2-5> 한국 문화 관련 사전 및 누리집의 분류체계

사전명	분류 체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minbaek/	경제·산업(경제, 교통, 산업, 통신) 과학(과학기술, 동물, 식물, 의학) 교육 문학(고전산문, 고전시가, 구비문학, 한문학, 현대문학) 사회(가족, 사회구조, 촌락) 생활(민속·인류,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언론 출판(언론·방송, 출판) 언어(언어·문자) 역사(서사문화, 고대사,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근대사, 현대사) 예술 체육(건축, 공예, 국악, 대중음악, 무용, 서예, 연극, 영화, 조각, 체육, 현대음악, 회화) 정치 법제(국방, 법제·행정, 북한, 외교, 정치) 종교 철학(개신교, 대종교, 도교, 민간신앙, 불교, 신종교, 원불교, 유학, 천도교, 천주교) 지리(인문지리, 자연지리) 유형(인물, 지명, 개념용어, 유물, 단체, 작품, 문헌, 사건, 물품, 제도, 놀이, 유적, 의식행사, 동식물) 시대(선사,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네이트 민족문화대백과 http://100.nate.com/minbaek/	개념, 용어, 교리사상, 국명, 기관 단체, 기념일 행사, 놀이 경기, 대외관계, 문헌, 사건, 사회시설, 세시풍속, 용품, 도구, 유물, 유적, 음식, 의복, 의식, 인물, 자연물, 작품, 제도, 지명, 직업, 질병, 처방, 학문, 해외문학
한국학 영문용어 용례사전 http://www.aks.ac.kr/glossary/default.asp	국가 시대, 정권 정치 형태, 제도 정책 사회현상, 관직 관직 기관, 신분 당파 단체, 사건, 문헌, 유물 유적, 종교 사상 학문, 민속, 문화 예술, 산업, 지리, 기술
네이트 한국학 http://koreandb.nate.com	한국학총: 한국의 옛 가구,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 성씨와 본관, 전통놀이 역사와 인물: 역사 속 인물(상고시대_시대별로 인물 분류), 조선의 방목 문학과 예술: 뜻으로 풀어본 옛 그림(산수화/인물화/풍속화/민화/기타), 한국의 전통음악(국악-악기와 국악곡으로 분류), 소월과 그의 시세계, 조선왕실의 여성, 조선의 구전민요 종교와 사상: 한국의 불교, 한국의 유교, 한국의 천주교, 한국의 기독교 생활과 민속: 조선시대의 서민생활, 전통놀이, 기념일(명절, 기념일, 절기), 한국의 옛 가구, 한국의 탈 한국학마당: 고사성어, 명심보감, 조선의 왕과 궁중문화 테마한국학: 세종원, 십이지, 전설의 고향, 추석, 선덕여왕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main/main.asp/	자연·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어문학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	문화예술, 국가유물, 문화산업, 체육, 관광, 도서

○ 서적류

<표 2-6> 한국 문화 관련 서적의 분류체계

서적명	분류체계
우리문화 길라잡이_국립국어원	한국의 복식, 한국의 주생활, 한국인의 일생과 세시풍속, 한국의 민속 신앙, 한국의 멋, 한국의 상징과 특산물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_임경순	한국문화 이해의 시각, 한국문화의 특징과 전개,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의 지리 문화, 한국의 의식주 문화, 한국의 여가와 관광(觀光) 문화, 한국의 세시풍속과 의례 문화, 한국의 공동체 문화, 한국의 성과 결혼 문화, 한국의 정치와 교육 문화, 한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 한국의 정신문화, 한국의 대중문화와 예술 문화, 한국의 언어와 문학, 문화유산
한국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_임영철	현대 한국인의 생활양식(식생활, 주거, 복식) 한국사회의 구조(사회생활, 교육, 정치, 경제 · 경영) 한국 문화에 접하다(예능, 문화, 스포츠, 놀이, 오락 · 취미)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엿보다(한국인의 정신, 언어, 한국의 상징,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종교, 한국의 축제, 연중행사 · 국경일) 한국의 자연환경(동물, 식물, 지리 · 기후 · 풍토)
한국민속과 문화_강현모	민속과 민속학, 사회민속(혈연, 지연), 생활민속(의, 식, 주), 인간의 일생(의례), 세시민속(풍속), 신앙민속, 예술민속, 놀이민속, 구비문학, 현장조사방법

2.2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확정을 위한 정량연구

정량 연구 관련 데이터의 수집 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 조사 기관을 대상으로 수집된 문화용어 병렬 말뭉치의 구축 및 활용 관련 내용은 아래 III장에서 상술할 예정이나 문화용어를 정의하고 분류체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론연구 및 리서치 중심의 정성적 연구와 데이터 기반 정량적 연구가 교차적으로 병행되었기에 본 절에서 간단히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확정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된 정량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2.1 데이터의 수집과 구축

우선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9개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병렬 텍스트가 존재하는 한국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정량적 기준을 적용한 1차 용어 도출과 정성적 기준을 적용한 2차 용어 도출, 영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문화용어 후보군 확충을 위한 3차 추가 용어 도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문화용어 후보군 932개와 중국어 및 일본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문화용어 후보군 각 849개를 확보하였다.

2.2.2 문화용어의 선별 기준

문화용어의 선별 기준은 크게 정량과 정성적 기준으로 나뉜다. 1차 문화용어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것은 정량적 기준으로 용어의 출현 빈도와 기관별 분포 그리고 국립국어원 누리집과 『우리문화 길라잡이』

(2002, 학교재)에 소개된 총 236개의 우리 문화 기초용어 목록 포함 여부를 정량적 기준으로 삼아 문화용어를 선별하였다. 2차 문화용어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것은 정성적 기준으로 우선 선행된 관련 이론 및 리서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며 우리 문물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광의의 문화용어 정의를 내리고 문화를 크게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 세부 분류체계를 아래 표와 같이 확정하여 큰 틀의 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2-7> 문화용어 1차 분류체계

유형	무형
의, 식, 주(건축), 예술(음악, 미술, 무용, 건축, k-pop, 영화, 드라마, 문학), 놀이(여가, 스포츠), 역사기록물(조선왕조실록 등), 특산물(한산모시 등), 유형문화재, 한글	풍속(절기, 세시풍속), 민속신앙, 상징(태극), 역사적 사건(갑신정변), 관습, 제도, 무형문화재(강강술래, 판소리 등), 의례

위에 제시된 광의의 문화용어 정의와 분류체계를 통해 1차 선별을 거친 후 아래 세부적인 정성적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문화용어를 선별 및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용어 선별 과정에서 인명 및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하였다. 둘째, 문화용어 선별과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사전류와 용어집⁵⁾을 선별 도구로 활용하였다. 용어 선별 과정에서 사전과 용어집 표제어 혹은 표제어 관련 내용 설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회식문화’와 같이

5) 문화원형백과(네이버), 문화원형 용어사전(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국립민속박물관), 향토문화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용어사전(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겨레음악대사전(송방송 2012), 한국 미의 재발견(강우방 외 200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식백가지(한복진 2005), 전통향토음식 용어사전(농촌진흥청 2010), 두산사전 한국요리.

문화의 함축적 의미를 갖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국보, 보물, 지역 기념물, 사적, 중요민속자료 등 문화재법에 의해 보호 및 관리되는 대상과 세계유산목록 등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 모두 문화재로 용어를 분류하였으며, 중요무형문화재인 좌수영어방놀이와 같이 놀이와 문화재 분류에 동시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재로 분류하였다. 넷째, 인삼 등 특산품과 문화재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 외에 일반적인 자연물은 문화용어 도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섯째, 용어의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천 텍스트의 문맥을 확인하여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한 문화용어 도출 결과와 선행된 관련 이론 및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확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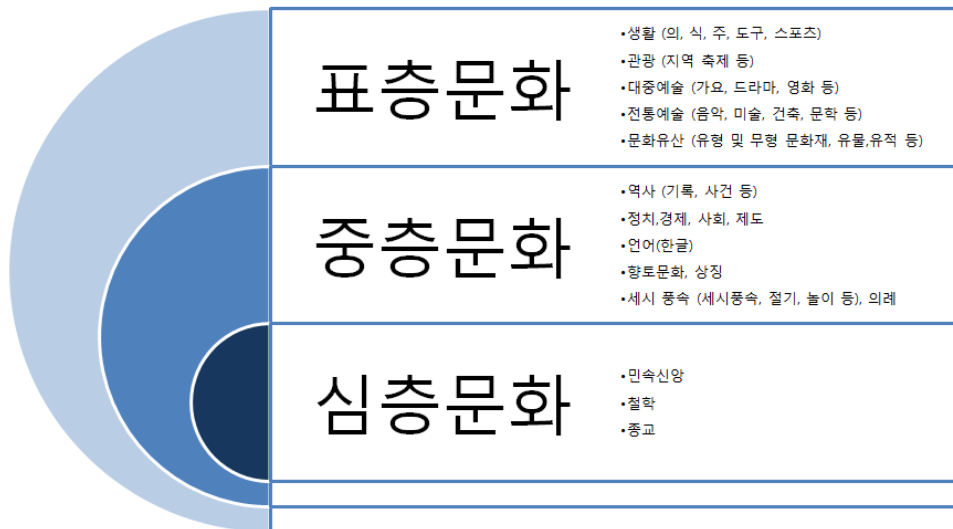
2.3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론 연구 및 리서치 중심의 정성적 연구와 수집된 데이터 기반 용어 선별 및 분류 중심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문화용어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확정하였다. 우선 문화용어는 한국 문화 관련 용어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개념어’로 정의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문화 외에 외래문화에서 유래하였으나 우리 고유의 문화로 정착하고 뿌리내린 문화(예: 중국에서 유래한 악기인 편종 등) 관련 용어 역시 문화용어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문화용어 분류체계의 경우 앞서 문화용어 도출 결과를 참고하여 유형

과 무형으로 이분화한 분류체계를 문화인류학과 번역학에서의 관련 이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분류체계로 채택되고 있는 표층문화, 중층문화, 심층문화로 재분류하였다. (아래 <그림2-4> 문화용어 분류체계 참조).

<그림2-4> 문화용어 분류체계



문화용어 분류체계 중 심층문화는 한민족의 정체성, 지각, 가치, 신념, 세계관 등 특정 문화적 행위를 유도하는 정신문화를 대표하고 민속신앙, 철학, 종교 등과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된다.

중층문화는 특정 문화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방식, 사회 공동체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규범, 민간의 생활 양식과 관습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역사(기록, 사건 등), 정치, 경제, 사회, 제도, 언어(한글), 향토문화, 상징, 세시풍속(세시풍속, 절기, 놀이 등), 의례와 관련된 용어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역사는 역사적 기록과 사건 관련 용어, 제도는 관직과 사회제도 및 행정기관명 등과 관련된 용어, 언어는 한글과 고전언어 관련 용어, 향토문화는 특정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대표하는 문

화 및 특산품과 관련된 용어, 의례는 관혼상제 및 종교 의식 관련 용어, 상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민족문화 100대 상징’에 선정된 용어, 세시풍속은 절기 및 이와 관련된 풍속, 놀이 등 관련 용어로 구성된다.

표층문화는 심층과 중층 문화를 토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관찰되는 정신 및 물질적 산물을 대표하는 문화로 예술문화와 관련된 대중문화(가요, 드라마, 영화), 전통예술(공연, 공예, 무용, 음악, 미술, 건축, 문학 등), 문화유산(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유물, 유적) 관련 용어, 생활문화(의식주, 도구, 운동경기) 관련 용어, 관광(지역 축제 등) 관련 용어들로 구성된다. 앞서 문화용어 선별 기준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등 문화재법에 의해 지정, 보호, 관리되는 대상은 모두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 문화재로 분류하였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대상물은 유물 및 유적으로 분류하여 용어를 구성하였다. 생활문화는 한민족이 살아온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의식주 관련 용어와 생활 도구 및 생활 속에서 즐기는 운동경기 관련 용어들로 구성되며, 관광은 특정 지방의 향토색이 반영된 지역축제와 관광 상품 등 관련 용어들로 구성된다. 기타 범주로 병기와 정서 등을 나타내는 용어 등이 선별되었는데, 양적으로 극소수인 관계로 공식적인 문화용어 분류체계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화용어를 분류하는 심층, 중층, 표층의 세 개 문화범주는 표층문화에 가까울수록 관찰가능성(observability)과 의식성(consciousness) 구체성(concreteness)⁶⁾이 높아지고, 심층문화에 가까울수록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며 각 문화범주 간에 경계는 상호 중첩되는 특징을 갖는다.

6) 문화인류학자 및 사회심리학자들은 관찰가능성(observability)과 의식성(consciousness), 구체성(concreteness)의 정도에 따라 문화요소의 수준을 분류하고 있다(이건표 2001, 54-57, 이정주 2006, 11 재인용).

Ⅲ. 데이터 수집 및 문화용어 추출

본 장에서는 문화용어를 추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데이터 수집 및 용어 추출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원래 영어를 기준으로 문화용어 최종 300개만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 용어를 추출 및 선정하는 과정에서 분석 대상 용어의 수를 특정 수치로 한정할 경우 인위적인 선정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편향된 분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대상 용어를 300개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보다 많은 용어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 다각적인 면에서 심층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통해 용어의 수를 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적시된 용어 추출 과정에서 정량 분석틀을 사용한 것은 과업 내역이 변경되기 전 심층 분석 대상 용어 300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였음을 밝혀 둔다.

3.1 텍스트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9개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된 병렬 텍스트가 모두 존재하는 한국어 콘텐츠를 대상으로 원문 텍스트 자료를 수집했다(총 1,431,461자).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가 최대한 일치하는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관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적은 곳도 있어 그러한 기관에 한해서는 원문 텍스트와 번역문 텍스트 간 양적 편차가 심한 요약 번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데이터 수집 범위에 포함시켰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로 모두 번역된 콘텐츠라 하더라도 문화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단순한 기관 소개와 같은 경우는 수집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소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존재하였으나 원문 텍스트와 내용 구성이 크게 상이하였다. 그러나 동일 주제를 다루고 있어 구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해당 문화재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어(키워드)는 반드시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원문 텍스트 수집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해외문화홍보원의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번역문 텍스트가 존재하였으나 그에 대한 원문 한글 텍스트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없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원문 텍스트를 제공받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경우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번역된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아 기관 간 양적 균형을 고려해 계간지인 <Koreana>의 지난 10년간 특집기사만을 데이터 수집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원문 텍스트의 경우 용어 추출을 위한 정량적 분석 척도(<표 3-1> 참조) 중 하나인 ‘분포도’, 즉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말뭉치 툴인 워드스미스(WordSmith)로 자동 산출할 수 있도록 동일 기관의 텍스트 자료는 단일 파일 형태로 저장하였다. 반면 번역문 텍스트의 경우는 전체적인 작업 진척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텍스트를 찾아갈 수 있는 정보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2 문화용어 추출

3.2.1 문화용어 후보군 추출

○ 1차 용어 추출(정량적 기준)

영어 기준 최종 300개 문화용어를 추출하기 위해 우선 2~3배 정도의 용어 후보군을 다음 3가지 척도를 바탕으로 정량적 기준에 따라 추출하기로 하였다.

<표 3-1> 문화용어 후보군 추출을 위한 정량 분석 척도

빈도수 (F: frequency)	모든 용어의 총 출현 빈도에서 차지하는 특정 용어의 빈도 비율 척도
분포도 (R: range)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
목록 포함 여부 (L: list)	『우리문화 길라잡이』(2002, 학고재)에 포함된 용어 목록과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국립국어원 누리집 ‘한국 문화 기초 용어’ 목록(http://www.korean.go.kr/09_new/dic/word/word_culture.jsp)을 통합한 236개 용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척도

앞서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원문 텍스트 파일을 대상으로 워드스미스(WordSmith) 툴을 이용하여 용어별 빈도수(F) 및 분포도(R)를 구하기 전 단계로 한글 한자 자동변환 프로그램(UTagger)을 사용해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워드스미스에서는 기본형 처리(lemmatization)가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용어에 대한 변이형까지 동일 용어로 취급하여 빈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형태소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화용어는 명사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형태소 분석 결과물에서 조사 등의 기능어와 용언 등은 제외하고 명사류

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압축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형태소 분석을 거친 기관별 파일 9개를 모두 워드스미스에서 불러와 전체 용어에 대한 빈도수(F) 및 분포도(R)를 구하고 그 결과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이 엑셀 파일(총 6,807개 용어)에 국립국어원 목록 포함 여부(L)를 나타내는 항목을 추가한 후, 세 항목(F, R, L)의 점수를 합산, 총점 기준으로 아래 <그림 3-1>과 같이 정렬하였다.

<그림 3-1> 정량적 기준에 의한 후보 용어 도출 화면

F2		fx		=C2+D2+E2			
	A	B	C	D	E	F	G
1	용어	빈도	F Score	R Score	L Score	총점	
2	전	84	0.24231	70	90	160.24231	
3	배	21	0.06058	60	90	150.06058	
4	상	16	0.04615	50	90	140.04615	
5	점	57	0.16442	40	90	130.16442	
6	물	33	0.09519	40	90	130.09519	
7	청자	10	0.02885	40	90	130.02885	
8	한식	6	0.01731	40	90	130.01731	
9	말	5	0.01442	40	90	130.01442	
10	제사	41	0.11827	30	90	120.11827	
11	한글	40	0.11538	30	90	120.11538	
12	역	14	0.04038	30	90	120.04038	
13	백자	11	0.03173	30	90	120.03173	
14	동지	9	0.02596	30	90	120.02596	
15	복	9	0.02596	30	90	120.02596	
16	추석	8	0.02308	30	90	120.02308	
17	한옥	7	0.02019	30	90	120.02019	
18	대보름	6	0.01731	30	90	120.01731	
19	국악	5	0.01442	30	90	120.01442	
20	신주	5	0.01442	30	90	120.01442	
21	판소리	5	0.01442	30	90	120.01442	
22	거문고	4	0.01154	30	90	120.01154	
23	인삼	4	0.01154	30	90	120.01154	
24	병풍	3	0.00865	30	90	120.00865	
25	회	3	0.00865	30	90	120.00865	
26	김치	44	0.12692	20	90	110.12692	
27	사당	14	0.04038	20	90	110.04038	
28	단오	9	0.02596	20	90	110.02596	
29	가마	8	0.02308	20	90	110.02308	

상위 115개 용어는 모두 국립국어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문화용어’로 바로 확정할 수 있었던 반면, 116위부터는 세 항목을 기준으로 한 정량적 분석들이 유의미한 변별력을 갖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나머지 6,690여 개 용어에는 일반 어휘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600~900개(최종 추출 기준치인 300개의 2~3배)에 달하는 문화용어 후보군을 추출해 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비 조사에서 잠정적으로 문화용어라 간주했던 용어들도 추출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들 용어의 경우 한글 한자 자동변환 프로그램(UTagger)의 참조 말뭉치인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 2차 용어 추출(정성적 기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정량 분석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용어 후보군을 추출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용어는 형태소 분석을 거치지 않은 원문 텍스트에서 정성 분석을 통해 추출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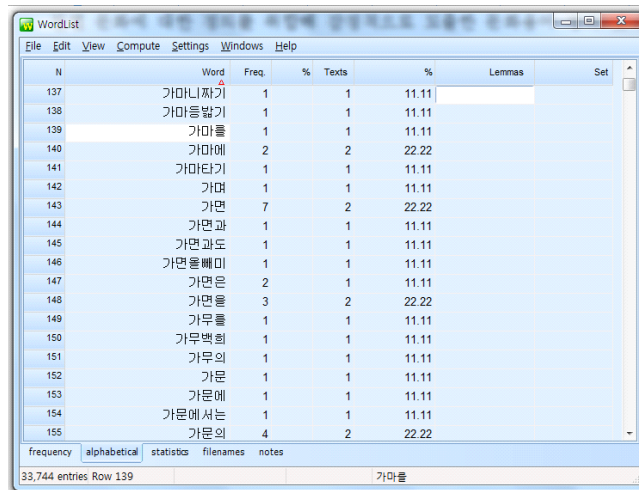
여기서 정성 분석이라 함은 번역학, 인류학 분야 등의 기존 문헌 및 공공기관별 문화에 대한 정의를 취합해 잠정적으로 도출한 문화용어의 정의 및 분류를 기준으로 문화용어라고 대략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용어를 추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형태소 분석을 거치지 않은 원문 텍스트를 워드스미스에 입력한 결과 총 33,744개의 어휘 목록(WordList)이 생성되었다. 이는 물론 정량 분석을 통해 확인한 115개 용어를 포함한다. 이 어휘 목록을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문화용어에 대한 잠정적 정의 및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후보 용어를 추가로 추출하였다.

○ 3차 추가 용어 추출

정성 분석에 의한 2차 추출 과정을 진행하는 한편 동 과정으로도 충분한 양의 용어 후보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영어 번역문만 존재하는 원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추가 후보 용어를 확보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림 3-2> 워드스미스 어휘 목록(WordList) 도출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WordList application window with a menu bar (File, Edit, View, Compute, Settings, Windows, Help) and a table of word frequency data. The table has columns for N, Word, Freq, %, Texts, %, Lemmas, and Set. The data is sorted by frequency, with '가마' (gama) having the highest frequency (7) and '가마의' (gama-ui) having the lowest (1). The status bar at the bottom indicates '33,744 entries Row 139' and the current word is '가마'.

N	Word	Freq	%	Texts	%	Lemmas	Set
137	가마니자기	1		1	11.11		
138	가마등밧기	1		1	11.11		
139	가마를	1		1	11.11		
140	가마에	2		2	22.22		
141	가마타기	1		1	11.11		
142	가며	1		1	11.11		
143	가면	7		2	22.22		
144	가면과	1		1	11.11		
145	가면과도	1		1	11.11		
146	가면올빼미	1		1	11.11		
147	가면은	2		1	11.11		
148	가면을	3		2	22.22		
149	가무를	1		1	11.11		
150	가무백희	1		1	11.11		
151	가무의	1		1	11.11		
152	가문	1		1	11.11		
153	가문에	1		1	11.11		
154	가문에서는	1		1	11.11		
155	가문의	4		2	22.22		

마지막으로 워드스미스에서 어휘 목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은 용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원문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 보며 문화용어라 볼 수 있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 이들 용어도 용어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3.2.2 번역 실태 조사

다음으로 전술한 과정을 거쳐 확보한 후보 용어(영어 932개, 중국어 및 일본어 각 849개)에 대한 번역 실태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어 용어는 존재하나 그에 대한 대역어를 어느 한 기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본 연구에서 수집한 번역문 텍스트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였고 그 결과 영어는 778개, 중국어는 592개, 일본어는 577개로 압축되었다.

대역어를 찾을 수 있었던 이들 후보 용어 중 영어 기준 최종 300개 용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우선 영어에 한정해 각 용어별 번

역 양상(음역, 의역, 병기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림 3-3> 번역 실태 조사 작업 화면

1	용어	분류	설명	국가기호	국립민속	국립민속	문화재청	예비연도	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민족촌	해외문화홍보원
2	가곡	예술/음악	서조시(부리나래)와 고유의 정형시의 곡을 붙여서 공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Gagok, lyric song bydes accompanied by an orchestra; Gagok.					
3	가래떡	식								Rice cake slices 찰떡 보 가래떡		
4	가례	의례					Garye(wedding ceremony)					
5	가마	생활/도구	여섯마리 새끼를 태고 다니던 말것으로 한 가지이							Palanquin		
6	가마돌릴기	놀이					Treading on roof					
7	가배주	의례										Gabaeju, a traditional alcoholic drink
	가야금	예술/음악					gayageum twelve-string zither	the Gayageum (a twelve-stringed traditional Korean)		the gayageum,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string instrument of Korea; Three musicians from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and three Vietnamese musicians performed traditional folk songs of the two countries while playing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Korean gayageum master; Korean gayageum (Korean zither-like instrument) master; Music from Korea: the Gayageum; gayageum; "Hwang Brungki as Traditional Musidan: Gayageum Solo"; plays the gayageum (photo courtesy: Korean gayageum player);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최종 300개 문화용어 목록을 확정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해 선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첫째, 대역어가 존재하는 후보 용어 중 한국 문화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대표성을 지니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둘째, 번역적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번역 전략 및 지침을 도출함에 있어 다른 사례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종 300개 용어를 실제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 기준의 인위성 때문에 편향된 분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대상 용어의 수를 한정하지 않을 경우 보다 많은 용어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어 다각적인 면에서 심층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용어의 수를 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영어 778개, 중국어 592개, 일본어 577개)를 대상으로 각 언어별로 용어별 번역 유형을 분류하고 번역과 관련한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여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다.

IV. 각 언어별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

4.1 문화용어 영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

4.1.1 문화용어 번역 실태 조사 결과

총 9개 기관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932개의 문화용어를 선별하였다. 그 중 영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는 778개였다. 추출된 778개 문화용어를 대상으로 영어 번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특정 어휘에 대한 번역이 여러 개 존재하고 번역 방식이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 번역어의 총계는 모두 981개였다. 이 번역어들을 대상으로 번역의 문제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보 불충분, 오역, 표기 오류, 혼재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4-1> 문화용어 영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	비중
정보 불충분	27	42.9%
오역	18	28.6%
표기 오류	13	20.6%
혼재	5	7.9%
총계	63	100%

위의 표에서 보듯이, 문제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보 불충분과 오역이었고 그 다음으로 표기 오류와 혼재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유형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그 개념과 예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2> 번역 문제 유형의 개념 설명과 예시

유형	개념	예시
정보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문의 정보와 교집합 요소가 존재하는 하나 특정 문화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나 대상을 충분히 전달하기에 부족한 경우 상위어로만 번역한 경우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p>화문석 flower mats</p>
오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문의 정보를 왜곡한 경우 	<p>가래떡 rice cake slices</p>
표기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탤릭체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p>풍물놀이 pungmul nori the pungmulnori</p>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기관 이상의 누리집 또는 동일 기관 내에서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번역된 경우 	<p>해인사 Haeinsa Temple Haeinsa, or the “Temple of Reflections on a Calm Sea” Haein Temple</p>

위의 각 유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 불충분

정보 불충분은 음역이나 의역으로 번역은 하였으나, 특정 문화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나 대상물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화문석’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예1) 화문석 flower mats (한국교류재단)

‘화문석(花紋席)’ 즉, 꽃무늬 패턴의 돛자리라는 뜻의 한자어를 ‘flower mats’로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mat’는 서양의 양탄자나 러그를 연상하기 쉽다. 화문석의 소재인 왕골을 포함시켜 ‘rush mats woven with flower patterns’ 등과 같이 번역하면 타문화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예2) 철변두 Cheolbyeondu (문화재청)

‘철변두’는 ‘제상에 놓인 고기나 과일을 거둬’를 의미하는 의례 용어이다. 이 용어를 추가 설명 없이 음역만 하면 ‘철변두’가 의례 중 어떤 절차인지 알 수 없다. 텍스트에 별도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the final stage of bidding farewell to the spirits by taking the sacrifices back (cheolbyeondu)’ 혹은 ‘Cheolbyeondu (withdrawing sacrificial offerings)’와 같이 번역할 때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3) 가배주 Gabaeju, a traditional alcoholic drink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 누리집에 ‘가배주’는 ‘gabaeju, a traditional alcoholic

drink’로 번역되어 있다. ‘가배주’는 신라시대부터 추석 때 즐겼던 절기주(節氣酒)인데 의역 부분을 보면 전통주라고만 되어 있다. 추석 때 즐겨 마시는 ‘가배주’의 특징이 번역에서 드러나려면 ‘a traditional alcoholic drink for Chuseok’과 같이 설명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오역

오역은 주로 의역, 특히 일대일 치환식의 의역 유형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

예1) 취위(就位) ancestral tablet placing (문화재청)

문화재청 누리집에 소개된 ‘취위’는 제례 용어 중 하나로 ‘제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것’이다. 그런데 영문 번역을 보면 ‘신주를 자리에 놓는 행위’로 기술되어 있다.

예2) 투호 the game of fire trench (해외문화홍보원)

‘두 사람이 일정한 거리에서 청·홍의 화살을 던져 병 속에 많이 넣는 수호로 승부를 가리는 놀이’인 투호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isitors to royal tombs including Donggureung in Guri,
Hongyureung and Gwangneung in Namyangju,
Sejongdaewangneung in Yeosu, Chilbaekuichong in

Geumsan, and Hyeonchungsa Temple in Asan, from September 18 to September 20, will be able to try traditional folk games including the game of yut and fire trench and drink traditional tea.

‘투호’를 ‘전투호’로 잘못 보고 오역한 사례이다.

예3) 지게 yoke (한국국제교류재단)

‘지게’의 경우에는 일대일 치환 방식을 사용하여 ‘멍에’를 의미하는 ‘yoke’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지게와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상기 용어가 사용된 맥락에서는 ‘물지게’라 하여 ‘water yoke’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 용어만으로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기 어렵다. 우리 근대사의 일부인 물지게는 전통 방식의 지게를 다리 부분은 짧게 하고 상부에 긴 막대를 가로 방향으로 고정해 양끝에 물통을 달 수 있도록 변형한 것으로 ‘wooden frame for carrying water buckets’ 정도로 번역하거나 혹은 ‘wooden frame’ 대신 ‘a-frame’이라는 설명을 넣어 번역할 수 있다.

○ 표기 오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원칙을 따르지 않거나 이탤릭체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 표기 오류 유형은 불필요한 붙임표(-)를 사용하거나,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해야 하는 로마자 표기법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로마자 표기 시 띄어쓰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같은 어휘에 대한 띄어쓰기가 혼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예1) 풍물놀이 pungmul nori; the pungmulnori (해외문화홍보원)
동일한 누리집 내에서 로마자 표기 시, 띄어쓰기 일관성 결여

예2) 갈비찜 Galbijim (×) (해외문화홍보원)

찜에 대한 파찰음 표기는 “jj”

→ Galbijjim (○)

예3) 녹로 Noklo (×) (해외문화홍보원)

자음의 음운 변화를 반영해서 “농노”로 표기

→ Nongno (○)

○ 혼재

문화재 명칭 등과 같이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할 용어가 기관별로, 또는 한 기관 내에서조차 일관성 없이 번역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1) 해인사

- Haeinsa Temple (문화재청)
- Haeinsa, or the ‘Temple of Reflections on a Calm Sea’
(문화재청)
- Haeinsa (한국국제교류재단)
- Haein Temple (한국국제교류재단)
- Haeinsa Temple (해외문화홍보원)

예2) 가야금

- gayageum, twelve-string zither (문화재청)
- the Gayageum (a twelve-stringed traditional Korean harp) (한국관광공사)
- a Gayageum, a 12-string traditional Korean zither (한국국제교류재단)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 개 기관의 누리집에 소개된 ‘가야금’은 보편적으로 음역 뒤에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하고 있다. 가야금은 관광공사 누리집에서 ‘harp’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zither’로 번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식 의미역까지 어느 정도 표준화된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어휘의 대문자 표기 및 관사 사용에서 일관성이 없다. 그밖에 로마자로 표기된 어휘의 경우,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보통명사는 이탤릭체로 표기해야 하나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4.1.2 문화용어 번역 유형

문화용어 번역상의 문제점에 이어 문화용어의 영어 번역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추출한 981개의 번역어를 번역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번역방식의 유형은 크게 (1)음역 (2)의역 (3)음역 및 의역 병기라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체 번역어 중 총 44.1 퍼센트가 의역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음역 및 의역 병기가 41.1 퍼센트를 차지하였다. 한편 음역에만 의존해서 한국의 문화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14.8 퍼센트에 불과했다.

<표 4-3> 대분류에 따른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

번역 유형	개수	비중
음역	145	14.8%
의역	433	44.1%
음역 및 의역 병기	403	41.1%

위의 표를 보면 한국 문화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대부분 의역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소개할 때 수용자인 영어문화권의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에 담긴 의미를 살려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각 유형을 다시 하위 범주로 구분해 보았다. 각 범주의 개념과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번역 유형 개념 설명과 예시

번역 유형	정의		예시
음역	완전음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용어의 원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경우(단일구성 명칭) 	분청사기 Buncheongsagi
의역	대응식 의미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착어 문화의 유사한 어휘(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어휘의 표층 의미, 언어기호를 옮긴 번역 	가마 palanquin
	설명식 의미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용어를 의미 중심으로 번역한 경우 언어 외적인 심층 의미까지 포함된 번역(언어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의 개념, 함의, 맥락을 번역한 것) 	분청사기 grayish blue powdered celadon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응식 의미역과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한 경우 	달 항아리(달항아리) 'moon jar,' a round white porcelain vessel that was a signature ceramics type of the late Joseon period
음역 및 의역 병기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용어의 원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후 추가 정보로 도착어 문화의 유사한 어휘, 즉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강강술래 Ganggangsullae, Circle Dance 영녕전 Yeongnyeongjeon, Hall of Eternal Comfort

	<p>완전음역 + 설명식 의미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용어의 원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후, 추가 정보로 도착어 문화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번역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p>분청사기 Buncheongsagi (grayish-blue powdered celadon)</p> <p>불고기 Bulgogi (marinated beef)</p> <p>금천교 the beautiful granite bridge Geumcheongyo</p>
	<p>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용어의 원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후, 추가 정보로 도착어 문화의 유사한 어휘로 치환한 번역과 도착어 문화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식 정보를 덧붙인 경우 	<p>승정원일기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a detailed record of the daily events and official schedules of the court, from the Joseon Dynasty's first King, Taejo, to its 27th and last Sunjong</p>
	<p>완전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용어의 원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뒤 대상의 기능이나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해 후부요소에 해당하는 어휘만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p>불국사 Bulguksa Temple</p>

	전부요소 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일 어휘 혹은 합성어를 번역하는 방법으로 전부요소는 음역으로 후부요소는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불국사 Bulguk Temple 분청사기 Buncheong Ware
	부분 음역 + (부분 대응식 의미역) + 부분 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두 개의 어휘가 결합된 용어(복합 구성 명칭)의 번역 	잡은 강강술래 Jajeun (quick) Ganggangsullae 생막걸리 fresh makgeolli; draught makgeolli

위의 표에서 사용한 어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역은 한국의 고유문화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 발음 그대로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완전음역’은 단일 용어를 음역만으로 번역한 경우이다. ‘대응식 의미역’은 도착어(영어) 표현 중 출발어(한국어)와 최대한 등가를 이룰 수 있는 용어로 일대일로 치환하는 유형이다. ‘가마’를 영어의 ‘palanquin’으로 대체하는 번역이 대응식 의미역의 일례로, 어휘의 표층의미, 언어기호만을 전달한다. ‘설명식 의미역’은 어휘의 표층적 의미뿐만 아니라 심층적이고 내포적인 의미까지 살려 번역하는 방법으로 언어 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의 개념, 함의, 맥락까지 번역한다. 도착문화인 영어 사용권에 없는 한국의 어휘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해설에 가깝게 번역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부분 음역’에서 ‘부분’이란 음역 또는 의미역하는 복합 구성의 일부를 뜻한다. 번역 유형을 기술한 용어 중 ‘전부(前部)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을 가리키고 ‘후부(後部)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을 가리킨다.

이상으로 한국의 문화용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주로 어떠한 방식이 활용되었는지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유형별로 번역어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개수를 조사하고, 각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해 보았다.

<표 4-5>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

번역 유형	구성요소	개수	비중(%)
음역	완전음역 + (∅)	145	14.8%
의역	대응식 의미역 + (∅)	301	30.7%
	설명식 의미역 + (∅)	129	13.1%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3	0.3%
음역 및 의역 병기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	123	12.5%
	완전음역 + 설명식 의미역	154	15.7%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8	0.8%
	완전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	30	3.1%
	전부요소 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	53	5.4%
	부분 음역 + (부분 대응식 의미역) + 부분 음역	35	3.6%
	합계	981개	100%

분석 대상이 된 총 981개의 번역어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번역 유형은 대응식 의미역 + (∅)으로 총 301개(30.7%)였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번역 유형은 완전음역 + 설명식 의미역(15.7%)이었고, 완전음역 + (∅)(14.8%), 설명식 의미역 + (∅)(13.1%),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12.5%)의 순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4.1.3 번역 유형별 분석

○ 음역

음역이란 출발어(한국어)의 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번역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류법에 따르면, 음역에 해당하는 하위범주는 ‘완전음역 + ∅’가 유일하다.

i) 완전음역 + (∅)

이 방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한국어 용어의 원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설명 없이 대상을 지칭하는 음성(phonetic) 정보만을 제공하는 번역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 분청사기 Buncheongsagi, 철번두 Cheolbyeondu,
가례 garye (문화재청)

위와 같이 완전음역은 도착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번역할 때 주로 사용한다. 한국 문화의 타자성을 수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고유한 문화의 특성을 부각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이미 세계화

되어 정착된 문화용어들은 완전음역한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예로 ‘한글(hangeul)’, ‘한류(hallyu)’, ‘김치(kimchi)’, ‘불고기(bulgogi)’, ‘아리랑(Arirang)’ 등이 있다. 완전음역은 어휘의 경제성 측면에서 표제어 번역에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분청사기(buncheongsagi)’, ‘철번두(cheolbyeondu)’, ‘가례(garye)’ 등과 같이, 해당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 될 수 있다.

○ 의역

의역은 특정 어휘를 의미에 중점을 두고 번역한 유형으로서 대응식 의미역, 설명식 의미역,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으로 나눌 수 있다.

i) 대응식 의미역 + (∅)

대응식 의미역은 출발문화의 대상(용어)을 도착문화에 존재하는 대체물(용어)로 일대일 치환하는 번역 방법으로, 해당 용어의 표층의미(언어 기호)만을 번역하게 된다.

예) 부적 talisman (국립민속박물관)

가마 palanquin (한국국제교류재단)

사리호 Sarira Reliquary (한국국제교류재단)

빈전도감 Office of the Royal Coffin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응식 의미역은 출발어를 도착어의 어휘로 단순 치환해도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없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어사전에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로 정의된 '부적'은 영어 문화권의 'an object which you believe has magic powers to protect you or bring you luck'을 의미하는 'talisman'으로 옮길 수 있다. 도착어 어휘의 개념이나 대상이 출발어 문화의 개념이나 대상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을 때 대응식 의미역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대응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어휘 이외에도 한자어가 포함된 인공물, 즉,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을 번역할 때도 가능하다. 이는 한자어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어와 영어의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녕전(永寧殿) Hall of Eternal Comfort'이나 '일성록(日省錄) Records of Daily Reflections'의 사례처럼 한자의 의미와 영어의 의미 간에 대응관계가 성립하면 대응식 의미역을 할 수 있다.

ii) 설명식 의미역 + (∅)

설명식 의미역은 전술한 대응식 의미역과 비교했을 때, 음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대응식 의미역에 비해 독자에게 좀 더 확장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기본적인 정보, 즉 출발어의 표층의미 이외에 의미 전달에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를 혼합해서 번역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설명식 의미역은 해당 용어의 심층, 즉 언어기호가 가리키는 대상의 개념, 함의, 맥락 정보까지 번역에 반영할 수 있는 번역 방식이다.

예) 분청사기 a grayish blue powdered celadon (한국관광공사)

비각 a pavilion to enshrine the memorial stone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명식 의미역은 수용자 친화적으로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위에 제시된 도자기 용어 ‘분청사기⁷⁾’를 ‘buncheongsagi’로 별다른 정보 없이 완전음역하게 되면 해당 어휘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는 영어권 독자들에게 용어의 음성 (phonetic) 정보만을 제공하는 셈이다. 반면, 분청사기를 ‘grayish blue powdered celadon’으로 번역하면 독자들에게 회청색 자기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외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불목돌(extra thick stone slabs placed at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agung*i and *gorae*)’, ‘찜질방(a type of public sauna)’ 등이 있다.

iii)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유형은 대응식 의미역과 설명식 의미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번역 방식이다.

예1) 사천왕

the four heavenly kings, the guardians of the four corners of the heavens who are often found at temple gates (문화재청)

예2) 달 항아리(달항아리)

‘moon jar,’ a rotund white porcelain vessel that was a signature ceramics type of the late Joseon period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대일 치환 방식의 대응식 의미역만으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거나, 번역된 텍스트의 용도나 대상 독자를 고려할 때 추가 정보가

7) 조선 시대에 만든 자기의 하나. 청자에 백토(白土)로 분을 발라 다시 구워 낸 것으로, 회청색 또는 회황색을 띤다. (표준국어대사전)

필요한 경우, 해설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번역 방법이다. 사례로는 ‘차례 (a memorial ritual, performed on the morning of the lunar New Year and Harvest Moon holiday)’, ‘해녀(sea woman, the island’s iconic female divers)’ 등이 있다.

○ 음역 및 의역 병기

다양한 형태의 음역과 의역을 병기하는 번역 방식이다. 본 연구의 분류 체계에 따라 음역과 의역 병기 유형은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i) 완전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

완전음역과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을 병기한 유형은 한국어 용어의 원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뒤 후부요소에 해당하는 어휘만을 대응식 의미역한 경우다. 주로 단일 구성 명칭을 번역할 때 사용한다.

예) 불국사 Bulguksa Temple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단일 구성 명칭 중 대상의 기능이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후부요소를 일대일 치환식의 대응식 의미역으로 번역함으로써, 특정 문화용어의 용도나 기능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불국사’라는 어휘 전체를 ‘Bulguksa’로 로마자 표기한 후, ‘사(寺)’에 해당하는 보통명사 ‘Temple’을 덧붙인 형태이다. 그 외에도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한라산 Hallasan Mountain’, ‘서당 seodang schools’, ‘영녕전 Yeongnyeongjeon Hall’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번역된 사례이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⁸⁾’에 따르면 용도나 종류 등을 나타내는 후

부요소가 포함된 자연 지물 또한 인공 축조물 등의 고유 명사는 고유의 문화재 명칭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번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 후부요소는 ‘실질적인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의미역하고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 괄호 없이 덧붙인다.

ii) 전부요소 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

‘전부요소 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 유형은 음역과 의역이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전술한 ‘완전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 유형과 유사하다. 다만, 전부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리 나는 대로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요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일대일 치환식으로 번역한다는 점이 다르다.

예) 불국사 Bulguk Temple (한국국제교류재단)

분청사기 Buncheong Ware (국립민속박물관, 해외문화홍보원)

상기 제시된 사례에서 보듯이, 단일 구성 명칭을 전부요소 부분, 즉, 해당 용어의 개별성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부분인 불국(Bulguk), 분청(Buncheong)을 음역으로 처리하고, 해당 용어의 보편적 실체나 유형을 알려주는 어휘, 즉, 후부요소 부분, ‘사(寺)’를 ‘temple’로, 도자기류를 의미하는 ‘기(器)’는 ‘ware’로 각기 다른 번역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단일 구성 명칭에 대한 문화재청의 표준 원칙은 ‘완전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예: Bulguksa Temple)’이나, 이번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된 기관의 누리집에서는 ‘전부요소 음역 + 후부요소 대응식 의미역(예: Bulguk Temple)’도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2014. 10. 17. 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iii)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은 단일 구성 명칭 전체를 음역한 후에, 어휘 전체를 일대일 단어 치환식으로 번역하는 방식이다.

예) 사자춤 *sajachum* (lion-masked dance) (해외문화홍보원)

영녕전 *Yeongnyeongjeon*, Hall of Eternal Comfort (문화재청)

일성록 *Ilseongnok*, Records of Daily Reflections (문화재청)

위의 사례를 보면 용어 전체를 한국어 용어의 원음대로 로마자 표기한 후, 도착어 문화에 존재하는 유사한 어휘를 추가 정보로 제공하였다. ‘영녕전(永寧殿)’이나 ‘일성록(日省錄)’은 모두 뜻글자인 한자어로 이루어진 어휘로, 뜻을 담고 있는 한자어와 영어를 일대일 대응하여 번역하였다. 그런데 이 유형의 경우,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 유형에서 뒤에 이어지는 대응식 의미역 부분의 추가 정보를 괄호 안에 넣어서 처리하거나, 쉼표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혼재한다.

iv) 완전음역 + 설명식 의미역

‘완전음역 + 설명식 의미역’은 단일 구성 명칭 전체를 음역한 다음 해당 명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번역 방식이다.

예) 분청사기 *Buncheongsagi* (grayish-blue powdered celadon)
(한국관광공사)

불고기 *Bulgogi* (marinated beef) (해외문화홍보원)

금천교 *the beautiful granite bridge Geumcheongyo*
(문화재청)

구들 *flat and shallow stones, gudeul* (해외문화홍보원)

‘완전음역 + 설명식 의미역’ 유형에서는 단일 구성 명칭 전체를 음역하고 해당 명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간단한 해설 형식으로 번역한다. 그런 후, 이를 음역 정보를 중심으로 전치 또는 후치 시킨다. 설명식 의미역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살펴보면, 분청사기와 같은 도자기의 경우에는 도자기의 형태나 제조 방식이 중요한 정보다. 불고기와 같은 음식명의 경우에는 재료 및 요리 방법이 중요하고, 금천교와 같은 인공지물은 해당 명칭의 기능이나 특징이 핵심이며, 구들과 같은 건축 관련 명칭은 ‘난방 구조물(floor heating system)’이라는 정보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가 설명식 의미역에 포함되었을 때 독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v)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완전음역 +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유형은 어휘 전체를 한국어 용어의 원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후, 추가 정보로 도착어 문화의 유사한 어휘로 치환하고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인 경우다.

예) 승정원일기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a detailed record of the daily events and official schedules of the court, from the Joseon Dynasty's first King, Taejo, to its 27th and last Sunjong (문화재청)

이러한 유형의 번역은 독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혹 과도한 정보량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vi) 부분 음역 + (부분 대응식 의미역) + 부분 음역

이 유형은 주로 복합 구성 명칭을 번역할 때 이용한다. 아래 제시된 예문 중 ‘잡은 강강술래’는 ‘빠르다’는 의미인 ‘잡은’과 ‘강강술래’가 결합된 문화용어이다. 이 경우, 복합 구성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를 부분적으로 단순 음역하고 여기에 음역된 정보의 영어 대응어를 괄호 속에 넣어서 제시한 후, 나머지 어휘 요소는 음역한다. ‘생막걸리’처럼 단일 구성처럼 보이나 의미상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어휘의 경우에는, 일부는 대응식 의미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음역하기도 한다. 음역을 해도 독자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이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진다.

예) 잡은 강강술래 Jajeun (quick) Ganggangsullae

봉화은어축제 Bonghwa Eun-Uh (Sweet Fish) Festival

생막걸리 fresh makgeolli; draught makgeolli

이상으로 번역 유형별로 각 유형의 특징을 사례와 함께 고찰해 보았다.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번역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1.4 문화용어 번역 방안 제안

본 절에서는 문화용어 영어 번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번역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완전음역

- 영어사전에 등재되었거나 외국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문화용어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준한 완전음역이 가능하다. 단, 영어사전에 등재된 철자와 로마자 표기가 불일치할 경우 사전에 등재된 철자가 우선한다.

예) 불고기 bulgogi, 소주 soju
김치 kimchi, 태권도 taekwondo

-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완전음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 방식을 취한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할 경우 완전음역 방식을 권장한다.

예) 아리랑 Arirang, 한글 Hangeul

○ 대응식 의미역

- 문화용어의 표층적 의미만을 번역하여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의미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 활용한다. 대응식 의미역의 경우 정보 불충분이나 오역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문화용어의 특징적

요소를 파악해 이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자어로 이루어진 인공물의 경우 대응식 의미역이 가능하다.

예) 부적 talisman, 가마 palanquin

사리호 sarira reliquary

빈전도감 Office of the Royal Coffin

- 특산물은 특정 지방이나 한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내포하므로 그 특징을 번역어에 반영한다. ‘~ 놀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와 연희와 공연적 성격을 갖는 놀이를 구분하여 번역한다.

○ 설명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은 충분한 소통성은 확보되나 경제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특정 문화용어가 갖는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 요소를 번역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통성이 강조되는 한식명은 현지에서의 수용성과 함께 문화의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기존에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한 ‘주요 한식명 로마자 표기 및 표준 번역 확정안’에 따라 번역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우리말 명칭만으로 해당 음식이 잘 표현되지 않을 경우 주재료, 맛, 형태 중 특징적인 요소가 드러나도록 간결하게 의역한다. 경우에 따라 음식 모양 및 조리법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예) 잡채 Stir-fried Glass Noodles and Vegetables

○ 음역 및 의역 병기

- 음역만으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대응식 의미역이나 설명식 의미역을 추가해 정보를 보완한다. 독자의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번역어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공간적 제약이 없을 때 채택하기에 적합한 번역 방식이다. 건축물 문화재, 축제 등을 번역할 때 적합하다.

- 건축물 문화재는 해당 용어를 완전음역하고 속성을 나타내는 후부요소를 의역할 것을 제안한다. 명칭 전체를 완전음역하는 이유는 문화재의 고유 명칭을 보존함으로써 한국을 찾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원활히 소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공간적 제약이 있을 경우 의역 없이 완전음역만을 활용할 수 있다.

예) 창덕궁 Changdeokgung Palace

- 문화용어 중 ‘~ 축제’의 경우, 지명 요소만을 음역하고 나머지 요소는 대응식 의미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명칭 자체만으로 무슨 축제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음역만 제시할 경우 소통성이 저하되며 설명식 의미역은 시각적 인지성이 떨어진다. 단, 공식 영문 명칭이 있는 경우 공식 명칭에 따른다.

예) 인제빙어축제 Inje Icefish Festival

- 중국, 일본 등과 그 원류가 같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을 거치며 독자

적으로 발전해 온 한국 문화 요소일 경우, 그 고유성을 부각시키거나 차별화시키기 위해 음역하되 음역만으로 의사소통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역을 병기한다. 이때 소통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공한다.

예) 단오 Fifth Day (부연 설명으로 ‘Fifth day of the fifth lunar month’ 활용 가능)

○ 기타 일반 사항

- 음역 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원칙에 따라 표기할 것을 제안하며 음운변화를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로마자 표기 시 가독성 제고를 위해 띄어쓰기는 국어의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시킨다.
- 최소한 동일 기관 내에서는 통일된 번역어가 일관되게 사용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립된 기관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정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독자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맥락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 표현의 경제성을 위하여 ‘Korean’ 또는 ‘traditional Korean’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번역은 지양한다.

예) 된장국 miso soup (×) → soybean paste soup (○)

김밥 sushi roll (×) → gimbap (○)

태권도 Korean karate (×) → taekwondo (○)

4.2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

4.2.1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조사 결과

총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849개의 문화용어를 선별하였으며, 그 중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는 592개였다. 추출된 문화용어 592개를 대상으로 중국어 번역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문화용어에 대해 복수 기관에서 각기 다른 번역 유형으로 혹은 동일한 번역 유형이지만 다르게 번역된 ‘혼재’가 포함되어, 실제 번역어의 총계는 문화용어의 대역어 총계인 592개보다 많은 656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재 양상을 보인 번역이 10.7 퍼센트, 둘 이상의 조사 대상 기관에서 동일하게 번역되어 통일성을 보인 번역이 16.3 퍼센트, 단일 기관에서만 번역된 비중이 73.0 퍼센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와 비중 (출발어 기준)
복수 기관 번역	혼재	62 (10.7%)
	통일	94 (16.3%)
단일 기관 번역		422 (73.0%)
총계		578 ⁹⁾ (100%)

9) 본 보고서의 번역 실태 분석 과정에서 번역 유형에 속하지 않는 오역은 양적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실태 분석 결과 총계인 578은 오역 14개를 제외한 개수이다.

번역 실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혼재의 양상은 동일한 번역 유형에서 나타난 혼재와 다양한 번역 유형을 통해 번역되면서 나타난 혼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하나의 용어가 단일한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나 혼재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로, 예를 들어 문화용어 ‘거북선’의 번역은 두 기관에서 모두 동일하게 의미역으로 번역되었으나 번역어는 각각 ‘乌龟战船’, ‘龟船’으로 상이하다. 이렇듯 의미역이라는 하나의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나 각 기관의 번역어가 서로 상이할 경우 본 보고서에서는 단일 유형 혼재라 칭한다. 후자의 경우 하나의 용어에 대해 기관별로 번역 유형이 상이한 경우로 문화용어 ‘온돌’이 기관에 따라 의역 ‘地暖(房)’과 한자역 ‘溫突’로 상이하게 번역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혼재 양상을 다중 유형 혼재라 칭한다. 궁극적으로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혼재는 단일과 다중 유형 혼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번역된 경우를 모두 혼재라 칭한다. 통일은 번역 유형을 막론하고 복수 조사 대상 기관에서 문화용어가 동일하게 번역된 것을 지칭하며 ‘한옥’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동일하게 ‘韩屋’로 번역되고, ‘장승’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민속촌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长丞’으로 번역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일 기관 번역은 단 하나의 기관에서만 번역되어 하나의 번역어만 존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문화용어 번역 표준화의 관점에서 문제 유형으로 파악되는 혼재 양상과 참고 유형으로 활용 가능한 통일 양상을 중심으로 문화용어 번역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혼재

<표 4-7> 번역 혼재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와 비중 (출발어 기준)	세부 유형	문화용어 개수 (출발어 기준)	번역 유형	번역어 개수 (도착어 기준)
혼재	62 (10.7%)	단일유형	29	의미역	31
				대응역	25
				혼역	4
				설명식 의미역	3
				음역	2
		다중유형	33	의미역	22
				대응역	20
				한자어 한자역	16
				설명식 의미역	8
				음역	5
				혼역	3
				한자어 대응역	2
				로마자 표기	1

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혼재 양상의 경우 의미역의 혼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역은 뜻을 살려 번역하는 번역 방법의 특성상 번역자의 주관적 해석이 강하게 개입되어 혼재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특징을 갖는다. 의미역 중에서도 특히 음식명의 혼재 비중이 높은데, 이는 전체 의미역에서 음식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양적 결과가 혼재 양상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 외에, 순우리말과 한자어 음식명을 각각 의역¹⁰⁾ 및 한자역 등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목표 문화권에서의 수용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번역이 시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장(越冬泡菜, 冬储泡菜, 腌制越冬辛奇)’, ‘젓갈(海鲜酱, 风味酱)’, ‘불고기(烤牛肉, 烤肉)’, ‘김치(泡菜, 辣白菜, 辛奇)’, ‘약과(蜜麻

10) 4.2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에서 사용하는 ‘의역’은 의미역과 대응역 및 설명식 의미역을 합한 개념이다.

花, 药果)’ 등이 의미역에서 혼재 양상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김치와 불고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알려진 음식명의 경우도 여전히 번역의 혼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의미역 다음으로 혼재 비중이 높은 것은 대응역이다. 앞서 의미역의 경우, 각 기관별 번역자가 용어의 의미를 각자 달리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혼재 양상이었다면, 대응역의 경우 동일한 용어의 대응어를 번역자마다 상이하게 생각하여 발생하는 대응어 간 불일치가 혼재 양상을 초래한 경우로 ‘독(石缸, 坛子)’, ‘모시(夏布, 苧麻)’, ‘옷고름(衣帶, 飄帶)’, ‘정월 대보름(元宵节, 正月十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용어의 의미를 설명식으로 풀어 전달한 설명식 의미역 유형의 경우도 혼재 양상이 뚜렷한데 이 역시 번역자가 주관적으로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고 서로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재 양상 중 용어에 대한 해석과 표현, 대응어의 선택 등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강하게 작용하는 의역의 범주, 즉 의미역과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이 전체 혼재 양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용어의 의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번역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의역 다음으로 혼재 비중이 높은 번역 유형은 ‘한자어 한자역’과 ‘한자어 대응역’을 포괄하는 한자역이다. 한자역으로 번역된 대상은 모두 한자어인 문화용어로 단일 유형 혼재 양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중 유형에서만 혼재 양상이 나타났다. ‘훈민정음’과 같이 문화적 고유성이 강한 한자어나 문화용어와 중국어 대응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중국어 간체로 그대로 전환하는 한자역의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혼재의 가능성이 배제된다. 반면 ‘잡채(杂菜)’, ‘가곡(歌曲)’과 같이 일부 한자어를 중국어 간

체로 그대로 전환할 경우 도착어 문화권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소통이 불가능한 번역이 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자역 외에 중국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번역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배경이 한자역의 다중 유형 혼재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혼역은 주로 2개 이상의 어휘가 결합된 복합어를 번역하는 방법으로 단일과 다중 유형에서 균등한 양상을 보였다. ‘남사당놀이(男寺党表演)’, ‘한산모시짜기(韩山夏布织造, 韩山苧麻编织)’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남사당놀이’와 같은 복합어가 하나의 문화용어 혹은 어휘로 사용되는 반면, 목표 문화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어가 없어 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남사당’과 ‘놀이’를 분리하고, ‘한산’, ‘모시’, ‘짜기’를 각각 분리하여 ‘한자어 한자역+의미역’, ‘한자어 한자역+대응역+의미역’¹¹⁾ 등 다양한 번역 유형을 병합하는 혼역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혼역의 구성 요소 중 한자어 한자역의 경우 혼재 양상이 적으나, 위의 혼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대응역과 의미역이 달라지면서 혼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강화고인돌유적(江华支石墓遗址 한자어 한자역+대응어 / 江华的史前石墓遗址 설명식 의미역)’과 같이 복합어를 혼역과 함께 의미를 풀어 이해를 돕는 설명식 의미역으로 번역하면서 다중 유형 혼재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 음역의 경우, 역시 번역어 총량 대비 혼재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다중 유형 혼재가 단일 유형보다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김치(辛奇)’, ‘판소리(盘索里)’, ‘막걸리(马格利)’, ‘택견(踏跟)’ 등의 음역어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다른 번역 유형으로 의미의 전달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와 같이 문화용어 번역이 혼재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

11) 혼역에 포함된 번역 유형은 전체 번역어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응역+한자어 한자역+의미역’의 대응역은 대응역 개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괄 범위가 넓고 지칭하는 대상이 매우 다양한 문화용어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문화용어 번역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 부족으로 인해 이론적 타당성과 실무 경험이 결합된 일관된 번역 지침의 부재가 번역의 혼재 양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배경이라 분석된다. 따라서 국내의 번역, 문화, 국어 등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및 검증을 거쳐 한국 고유의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는 문화용어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거쳐 번역되고, 궁극적으로 표준화된 문화용어 번역을 통해 일관되고 정확한 문화적 함의를 전달할 수 있는 문화용어 번역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통일

<표 4-8> 번역 통일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와 비중 (출발어 기준)	번역 유형	번역어 개수 (도착어 기준)
통일	94 (16.3%)	한자어 한자역	60
		대응역	19
		한자어 대응역	7
		의미역	6
		음역	1
		혼역	1

통일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하나의 문화용어가 동일하게 번역된 경우를 뜻하는데, 실태 분석 결과 한자어 한자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자어 한자역된 문화용어 중 통일된 번역 경향을 보인 용어는 대부분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훈민정음(訓民正音)’, ‘강녕전

(康宁殿)’, ‘장승(长丞)’ 등과 같이 문화적 고유성이 짙은 한자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자어 대응역과 대응역에서 통일된 번역 경향을 보인 용어들은 각각 ‘인삼(人參)’, ‘산수화(山水画)’, ‘사당(祠堂)’, ‘가마(轿子)’, ‘베틀(织布机)’, ‘죽(粥)’과 같이 한국과 중국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물과 관련되며 주로 현재의 일상생활에서 뿌리 내리고 통용되는 용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자어 대응역’과 ‘대응역’의 차이점을 보면 한자어 대응역의 유형으로 번역된 문화용어는 한자어인 반면, 대응역으로 번역된 문화용어는 순우리말이라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번역의 통일 양상에서는 한자어 한자역과 한자어 대응역을 포괄하는 한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말 한자어에 대한 한자역은 문화적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목표 문화권에서의 소통성이 담보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번역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역의 범주에 속하는 대응역과 의미역을 보면 대응역은 앞서 밝혔듯이 양국이 공유하며 현재의 일상생활에서도 통용되는 문물 관련 용어들이 주를 이루며, 의미역은 통일된 6개의 번역어 중 4개가 ‘김치찌개(泡菜汤)’, ‘송편(松饼)’, ‘떡국(年糕汤)’ 등의 음식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역의 특성상 혼재 가능성은 높지만 소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 일관된 번역 지침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번역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면 기존의 음식명 번역 혼재 양상을 현저히 줄이고 표준화된 번역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문화적 고유성과 소통성이 확보된 음식명 번역어를 통해 한국의 음식문화를 목표문화권에 알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번역 혼재 가능성이 높은 의역의 경우 목표 문화권에서의 기능에 따라 번역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음역의 경우, ‘아리랑(阿里郎)’이 유일하게 통일된 음역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은 오랫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민요로 중국에 알려져 있는데, 본 사례를 통해 순우리말 용어의 중국어 음역어 정착에 있어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역시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실태 분석 결과 순우리말 용어의 중국어 음역은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초기 단계로 분석된다. 중국어가 갖는 표의문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그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원음과 의미를 통해 오롯이 전달할 수 있는 음역 내지는 음의겸역¹²⁾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중국어 음역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 외에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총 14개의 오역이 발견되었다. 오역은 말 그대로 잘못된 번역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의미 오류 유형의 오역과 오자로 추정되는 글자 오류 유형의 번역을 오역에 포함하였다. 우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의미 오류의 사례로는 ‘간장(大醬)’, ‘한류 드라마(韩国历史剧)’, ‘대포집((烤肉)一条街)’, ‘탈놀이(假面具)’, ‘구홀미(米)’, ‘권취새끼놀이(抓小老鼠)’, ‘택견(跆拳道)’ 등이 있었다. 글자가 틀린 것으로 추정되는 오역으로는 ‘광화문(光化门(○), 光华门(×))’, ‘외규장각(外奎章阁(○), 外奎藏阁(×))’, ‘영산재(灵山斋(○), 灵山祭(×))’ 등이 나타났다. 의미 오류의 경우 ‘간장’처럼 고착된 대응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역이 발생한 경우, ‘탈놀이’, ‘구홀미’, ‘한류 드라마’와 같이 의미가 확장 또는 축소된 경우, ‘막국수(荞麦面)’, ‘약수(矿泉水)’와 같이 의미를 살려 번역하려 했으나 중국어 문화권에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 오류들은 해당 문화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부족, 적절한 의역어나 대응어 등을 찾기 위한 노력

12) 음의겸역: 원음에 가깝게 음역을 하되, 표의성이 가미된 글자들로 조합하여 언어문화 심리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김현주 2007: 483).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글자 오류의 경우 의미 오류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정확한 한자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혹은 번역자가 기존의 지식과 선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확인 과정 없이 그대로 번역한 것이 오역을 초래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화용어는 문화의 고유성과 함축성이 오롯이 녹아있기에 위와 같은 오역들로 인해 문화적 함의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분야의 용어 번역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4.2.2 문화용어 번역 유형

최종적으로 추출된 문화용어 592개를 대상으로 번역 유형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는 한자역, 의역, 혼역, 음역의 번역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번역 유형별 하위 번역 유형을 보면 한자역은 한자어 한자역, 한자어 대응역, 의역은 의미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 음역은 중국어 음역과 로마자 표기로 분류되었다. 각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9>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

번역 유형(대)	번역 유형(소)	개수 ¹³⁾ (도착어 기준)	비중	
한자역	한자어 한자역	291	44.4%	47.1%
	한자어 대응역	18	2.7%	
의역	의미역	130	19.8%	38.7%
	대응역	109	16.6%	
	설명식 의미역	15	2.3%	
혼역		82	12.5%	12.5%
음역	중국어 음역	10	1.5%	1.7%
	로마자표기	1	0.2%	
합계		656	100%	100%

한자역은 한자어 한자역과 한자어 대응역을 포괄하는 번역 유형으로서 한자어 한자역은 첫째, 한자어 문화용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한 경우(예: 가가례 家家礼, 강녕전 康宁殿), 둘째, 순우리말 용어를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해당 용어의 한자로 번역한 경우(예: 거문고 玄琴), 셋째, 순우리말 용어의 한자 이칭으로 번역한 경우(예: 장끼타령 雄雉歌)를 지칭한다. 한자어 대응역은 한자어 용어의 의미가 중국어 대응어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인삼(人參)’, ‘풍수(风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의역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유형의 통칭으로 의역의 형태 및 방식에 따라 의미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의 하위 번역 유형으로 나뉜다. 의미역은 한국어 문화용어¹⁴⁾의 의미를 간결하게 살리는 데 중점을 둔 번역 유형으로 ‘가래떡’을 ‘长条糕’로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응역은 한국어 문화용어가 중국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을 전제하는 대응어로 번역된 경우를 지칭하며 ‘가마’를 ‘轿子’로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씨름’을 레슬링을 뜻하는 ‘摔跤’로 번역한 것과 같이 간혹 목표 문화권의 대응어로 번역되었으나, 본래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는 번역도 눈에 띈다. 설명식 의미역은 문화용어를 2개 이상의 중국어 어휘로 풀어 설명한 경우를 지칭하며 ‘김치냉장고’를 ‘盛放辛奇的冰箱’으로 풀어 설명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혼역은 특정 용어를 번역함에 있어 구성요소별로 번역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여러 번역 유형이 한 용어 안에 드러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수리취떡(山牛蒡叶饼)’의 경우 ‘수리취’는 대응역, ‘떡’은 의미역한 것으로서 혼역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음역은 한국어 문화용어의 원음 표기를 강조하는 번역 유형으로 중국

13) 문화용어의 실제 번역된 유형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을 위해 번역 유형에 대한 양적 분석은 문화용어(출발어)가 아닌 실제 번역어(도착어)기준으로 진행하였다.

14) 본고에서 ‘한국어 문화용어’는 한자어 용어와 순우리말 용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어 음역과 로마자 표기로 나뉜다. 중국어 음역은 문화용어의 원음을 중국어로 나타내는 경우를 지칭하며 ‘아리랑’을 ‘阿里郎’으로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 문화용어를 소리 나는 대로 로마자로 표기한 경우로 ‘너비아니’를 ‘neobiani’로 번역한 경우를 지칭한다.

<표 4-10> 번역 유형 개념 설명과 예시

번역 유형		개념	예시
한자역	한자어 한자역	1. 한자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한 경우 2. 순우리말 용어를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해당 용어의 한자로 번역한 경우 3. 순우리말 용어의 한자 이칭으로 번역한 경우	1. 가가례 家家礼 2. 거문고 玄琴 3. 장끼타령 雄雉歌
	한자어 대응역	한자어 용어의 의미가 중국어 대응어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인삼 人参
의역	의미역	해당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경우	가래떡 长条糕
	대응역	해당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중국어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가마 轿子
	설명식 의미역	해당 용어의 의미를 2개 이상의 중국어 어휘로 풀어 설명한 경우	김치 냉장고 盛放辛奇的 冰箱
혼역		하나의 용어가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유형으로 번역되어 결합된 경우	수리취떡 山牛蒡叶饼 (대응역+의미역)

음역	중국어 음역	해당 용어의 원음을 중국어로 나타내는 경우	아리랑 阿里郎
	로마자 표기	해당 용어를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로마 자로 표기하는 경우	너비아니 neobiani

4.2.3 번역 유형별 분석

○ 한자역

● 한자어 한자역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한자어 한자역이 44.4 퍼센트로 번역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번역어의 통일 양상에서도 한자어 한자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 한자어 한자역은 현재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번역 유형인 것을 알 수 있으며, 번역어의 통일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의미의 전달성과 소통성 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번역 유형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한자어 한자역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의 문화용어가 총 망라되어 있으나 그 중 유형문화재(예: 불국사 佛国寺,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实录), 예술/음악(예: 농악 农乐), 의례(예: 음복례 饮福礼), 제도(예: 관아 官衙), 건축(예: 단청 丹青, 영제교 永济桥), 역사/기록(예: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实录地理志)의 분류에 속하는 문화용어 비중이 6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문화용어 분류의 특성상 한자어 한자역이 되는 문화용어는 주로 현재보다는 과거의 문물

을 나타내며, 순우리말보다는 한자어 문화용어가 주로 한자역의 방식을 통해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예로부터 한자 문화권으로 과거의 문물, 특히 제도권에 속하여 문헌 등에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보존되는 문물이 대부분 한자어로 통용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유형문화재, 역사 기록물, 제도 등 과거의 제도권 문화에 속하며 한자어로 표기된 문화용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하는 방식의 한자역은 문화의 고유성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도 일정한 소통성을 보장하는 번역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 한자역의 혼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번역 유형이 모든 한자어 문화용어 번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대 생활에서도 자주 통용되는 ‘고사’나 ‘가곡’, ‘신주’를 그대로 ‘告祀’와 ‘歌曲’, ‘神主’로 한자역한다면 의미 전달과 소통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 용어들은 한자역뿐 아니라 의미역과 대응역 등 다양한 유형으로 번역되어 혼재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유형문화재, 의례, 유물 관련 한자어 용어와 같이 과거의 문물을 지칭하며 한자어 자체에 문화적 고유성과 독창성이 함축되어 있어 의미의 전달과 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최대한 한자역하여 문화적 고유성과 소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고사’와 ‘가곡’처럼 현대어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한자역할 경우 의미 왜곡과 소통 불가의 위험성이 있다면 현대어 맥락에서의 소통 가능성, 목표 언어권에서의 기능성,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 왜곡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역 등을 통해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고유성을 원음과 의미를 통해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음역 또는 음의점역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 한자어 대응역

한자어 대응역은 한자어 문화용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했을 때 도착어 문화권의 대응어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자어 대응역은 한국과 중국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물과 관련된 용어가 주를 이루는데 대표적으로 ‘두부(豆腐)’, ‘상례(喪禮)’, ‘인삼(人參)’, ‘탕(湯)’, ‘풍수(風水)’, ‘보살(菩薩)’, ‘산수화(山水畫)’ 등이 있다. 우리말 한자를 그대로 중국어 간체로 전환하여 번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할 여지가 적고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소통과 수용에도 문제가 없다. 다만 한자어 대응역 방식으로 번역된 유형이 전체 번역어 비중에서 2.7 퍼센트임을 감안할 때 한자어 대응역의 적용은 출발어와 도착어 문화권에서 공유되고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문화용어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는다.

○ 의역

- 의미역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에서 한자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의미역이다. 의미역 역시 다양한 분야의 문화용어가 총 망라되어 있으나 그 중 음식명이 30 퍼센트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김혜림(2012: 64)에 따르면 음식명에 대한 의미역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어가 표의문자 체계를 갖고 있어 외래어의 음운 표기에 적합하지 않고 특히 음식명의 경우 목표 문화권에서의 수용성이 번역 전략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음식명은 기본적으로 순우리말(예: 가래떡)과 한자(예: 약과) 음식명으로 나누어지는데, 순우리말 음식명(표음문자)을 중국어(표의문자)로 음운 표기 하는 것이 불가

능하고, 설사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음운 표기를 한다 해도, 해당 한자가 갖는 고유한 의미가 음식명의 문화적 함의를 훼손할 수 있다(김혜림 2012: 64). 또한 ‘잡채’와 같이 한자로 된 음식명을 그대로 한자역할 경우 목표문화권에서의 수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실태 분석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반영되어 음식명의 의미역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명 외에 세시풍속 및 전통놀이(예: 가마등밟기 抬轿子), 무형문화재(예: 줄광대 走绳艺人, 살풀이춤 驱煞舞), 생활 도구 및 풍습(예: 이불 호칭 白被单), 사회(예: 새마을 운동 新村运动), 예술(예: 달항아리 月缸), 주거(예: 이엉 잇기 搭建茅草屋顶), 생활 의례(예: 홍동백서 东红西白)와 관련된 문화용어가 의미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종합해 보면 의미역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나타내는 용어 중 주로 음식, 주거, 생활, 풍속, 놀이, 예술, 사회 관련 용어가 주를 이루는데, 이들 용어는 앞서 주로 한자역된 의례, 제도, 역사 기록물, 유형문화재 등 관련 용어와는 달리 순우리말 용어가 많아 중국어 번역 과정에서 의미를 살리는 번역 방식인 의미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의미역에서 순우리말 용어 비중이 높은 것은 수치로도 확인되는데, 전체 의미역 중 60 퍼센트 이상이 순우리말 용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한자어 용어를 그대로 한자역 했을 때 소통이 어렵거나, 의미 왜곡이 초래될 수 있는 한자어(예: 강정 羌釘→米条, 문중 門中→家族)가 주로 의미역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역의 특징은 높은 혼재 비중으로 이어진다. 순우리말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주관적 해석과 표현이 상이하여 혼재 양상이 나타나고, 특히나 ‘세배’와 ‘절’ 등 한국 고유의 생활 및 풍습과 관련된 용어일 경우 마땅한 대응어가 없어 기관별로 혹은 텍스트 문맥에 따라 각각 ‘叩拜’, ‘拜年’과 ‘交拜’, ‘行礼’, ‘跪拜’ 등 다

양한 번역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의미역의 경우 본 실태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해당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할 경우 번역자의 주관적 의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높고 표현도 다양하여 번역 혼재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소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미역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식명의 경우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문화의 고유성과 의미의 소통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번역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이 향후 다른 문화용어 분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대응역

실태 분석 결과 대응역의 방식으로 번역된 문화용어의 특징은 전통과 현대를 막론하고 한중 양국 모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공유하는 문물과 풍습 관련 용어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扇子)’, ‘밥(米饭)’, ‘돌(周岁)’, ‘떡(年糕)’, ‘수저(筷勺)’, ‘팽이치기(抽陀螺)’, ‘북(鼓)’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며 중국과 많은 문화와 문물을 공유하였다. 앞서 제시한 번역 사례들이 양국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물과 풍습의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전승된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착화되면서 각국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고 새롭게 파생적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과 중국이 문화적 갈등을 빚기도 한 강릉단오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동일한 문화권을 전제한 대응역은 문화적 함의를 일부만 전달하거나, 완전히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번 실태 분석에서 연구진은 대응역의 번역 양상을

분석하면서 의미의 불일치가 의심되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갯’을 모양과 재질이 전혀 다른 ‘斗笠’로 번역하여 명백하게 의미가 불일치하는 경우 외에도,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특정 문화용어의 대응어로 사용하였지만 의미의 일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씨름’을 ‘摔跤’라는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摔跤’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레슬링과 프로레슬링으로 통용되는데, 씨름은 한국 고유의 운동 경기로 레슬링과는 구별된다. 또한 본 실태 분석에서 ‘대보름’, ‘설날’, ‘추석’ 등의 명절을 각각 ‘正月十五, 元宵节’, ‘春节’, ‘中秋’ 등 도착어 문화권의 대응어로 번역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대응역이 해당 명절 고유의 문화적 함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혹여 도착어 문화권의 대응어로 번역할 경우, 한국 명절 고유의 특성은 사라지고 중국의 독자로 하여금 자국의 해당 명절을 연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응역의 경우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의미의 일치성, 전달의 효과성, 문화적 함의의 중첩성 여부 등을 조금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음역 혹은 음의점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보름’을 중국의 ‘正月十五’, ‘元宵节’ 등의 대응어로 번역할 경우,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대보름 중 ‘보름’은 우리말 한자어에서 만월을 지칭하는 ‘望’으로 한자역 겸 의미역하고 ‘대’는 ‘大(큰 대)’로 한자역 겸 음역하여 ‘大望日’로 번역하는 것이 음의점역의 사례가 될 수 있다.

● 설명식 의미역

설명식 의미역은 한국어 문화용어의 의미를 2개 이상의 중국어 어휘

로 풀어 설명한 경우로 주로 ‘겉절이(用盐腌制的小萝卜和白菜等)’, ‘김치냉장고(盛放辛奇的冰箱)’, ‘창포물머리감기(用菖蒲水洗头)’, ‘신명(热情和兴致)’ 등 한국 고유의 식문화와 정서, 풍습 관련 용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다. 설명식 의미역은 기본적으로 번역어라기보다는 설명에 가까우며, 주로 중국어 문화권에 생경한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의미 혹은 문물 관련 용어를 번역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어 옆에 괄호를 붙여 풀어쓰기 형식의 설명을 덧붙이곤 한다. 그러나 본 실태 분석에서는 괄호 안 설명이 아닌 번역어로서의 풀어쓰기, 즉 설명식 의미역이 발견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명식 의미역은 하나의 번역어로 성립되지 못할 뿐 아니라 언어의 경제성과 의미 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번역의 방법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명식 의미역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임시적 보조 장치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어휘차원의 번역이 필요하다.

○ 혼역

2개 이상의 번역 유형이 결합된 형태의 혼역은 ‘한자어 한자역+대응역+의미역’, ‘한자어 한자역+음역+의미역’ 등 결합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혼역된 문화용어는 대부분 복합어로 전부요소¹⁵⁾와 후부요소¹⁶⁾로 결합된 특징을 갖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혼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축제’의 번역어이다. ‘무주반딧불축제(茂朱螢火庆典, 한자어 한자역+대응역+의미역)’, ‘영취산진달래축제(灵鷲山金达莱庆典, 한자어 한자역+음역+의미역)’, ‘광안리어방축제(广安里渔坊节, 한자어 한자역+의미

15) ‘전부(前部)요소’란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을 뜻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

16) ‘후부(後部)요소’란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제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을 뜻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

역)’, ‘울산고래축제(蔚山鯨魚節, 한자어 한자역+대응역+의미역)’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축제는 해당 지역명을 한자역하고 축제의 주제와 대상을 의미역 혹은 대응역하며, ‘축제’를 ‘庆典’과 ‘節’ 둘 중의 하나로 의미역하는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 지역명을 한자역하고, 축제의 주제와 대상을 의미역 혹은 대응역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축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庆典’과 ‘節’ 둘 중의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문화용어 번역의 표준화를 위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어에서 ‘庆典’은 축하를 목적으로 벌이는 행사, 즉 경축행사쯤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역축제는 축하하는 의미보다는 특정 주제로 벌이는 잔치와 문화 행사 등을 의미하는바, ‘渔坊节’, ‘鯨魚节’와 같이 ‘~節’로 축제의 번역어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혼역에서 지역 축제 외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놀이와 무형문화재로, 각각 ‘왓자놀이(臼字游戏, 한자어 한자역+대응역)’, ‘지신밟기(踩地神, 대응역+한자어 한자역)’, ‘윷놀이(尤茨游戏, 음역+대응역, 擲柶游戏, 의미역+대응역)’와 ‘어방놀이(渔坊戏, 한자어 한자역+의미역)’, ‘좌수영어방놀이(左水营渔坊戏, 한자어 한자역+대응역)’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놀이와 무형문화재 역시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를 갖는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앞서 지역 축제의 후부요소인 ‘~축제’에 대해 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유사한 후부요소인 ‘~놀이’의 경우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일반적인 전통놀이에서의 ‘놀이’는 ‘游戏’를 번역어로 사용하였으나, 연회와 공연의 성격을 갖는 ‘놀이’는 ‘戏’로 번역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후부요소가 ‘놀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놀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일정한 기준으로 확립하여 번역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음역

● 중국어 음역

중국어 음역의 방식으로 번역된 번역어 개수는 총 10개로 전체 번역어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통일된 음역어는 ‘아리랑(阿里郎)’이 유일하며, 단일 기관에서 음역된 용어는 ‘에버랜드(爱宝乐园)’, ‘생막걸리(生马格利酒)’이고, 혼재 양상을 보인 음역 사례는 ‘강강술래(羌羌水越来, 江江水月来)’, ‘김치(辣白菜, 泡菜, 辛奇)’, ‘막걸리(米酒, 马格利)’, ‘판소리(传统歌曲, 盘索里)’, ‘택견(跆拳道, 跆拳道)’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리랑’은 오랜 시간 한국을 대표해 온 전통 민요로 이미 ‘阿里郎’이라는 음역어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분석되며, ‘에버랜드’는 중국에 널리 알려진 국내 놀이공원으로 ‘爱宝乐园’이 역시 하나의 고유명사로서 정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강강술래’와 ‘판소리’의 경우 음역의 양상이 다양하여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강강술래’의 경우 국내에서의 한자 표기도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가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강강술래’가 ‘强羌水越来’로 표기되고 있으나 『한겨레 음악대사전』에서는 ‘羌羌随月来’로 표기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판소리’의 경우도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에는 ‘板索里’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 실태분석에서는 다른 음역어인 ‘盘索里’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강강술래’와 ‘판소리’ 두 용어의 음역 모두 기존의 사전 등이 제시하고 있는 한자어 및 음역 표기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표준화된 음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문화용어를 음역할 때는 번역자 임의로 한글 원음을 표기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신력 있는 사전이나 관련 용례 사전 등을 참고하여 음역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용어의 원음뿐 아

나라 문화적 함의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음역 내지 음의결역의 기준 및 지침의 마련과 보급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 로마자 표기

한글 문화용어를 소리 나는 대로 로마자로 표기한 번역 유형은 총 2개 정도로 확인되었는데 하나는 음역을 하면서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고(예: 뿔판 跳吧, 韩语发音 Ttwilpan), 다른 하나는 하나의 번역어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었다(예: 너비아니 neobiani). 기본적으로 음역이나 기타 번역 유형에서 괄호 안에 로마자 표기를 넣어 문화용어의 원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번역어로 로마자 표기만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단독의 번역어로 제시될 경우 원음은 전달될지 모르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원음의 ‘표기’일뿐 의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번역’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용어의 중국어 번역 시 원음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로마자 표기는 괄호 안에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가능한 중국어 음역을 통해 해결하며, 로마자 표기가 단독의 번역어로서 제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2.4 번역 방안 제안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누리집의 문화용어 중국어 번역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번역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자역:

한자역의 번역 대상은 대부분 한자어 문화용어로 한자역을 통해 문화

적 고유성과 소통성이 훼손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한자역 하되, 한자역으로 인해 문화적 고유성이 훼손되고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의역 등의 번역 방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고유성과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음역과 음의겸역을 지향한다.

- 유형문화재, 의례, 역사 기록물 등 관련 용어와 같이 주로 과거의 문물을 지칭하며 한자어 자체에 문화적 고유성과 독창성이 함축되어 있고 한자역이 의미의 전달과 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최대한 한자역하여 문화적 고유성을 살리고 소통성을 확보한다.

예) 불국사 佛国寺, 음복례 飮福礼,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实录地理志

- 한자어 문화용어를 중국어 간체로 전환했을 때 도착어 문화권의 대응어와 일치하여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할 여지가 적고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소통과 수용성 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경우 역시 한자역 한다.

예) 인삼 人參, 탕 汤, 풍수 风水, 보살 菩萨

- 한자어 문화용어의 경우라도 의미의 왜곡이 초래되고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목표 문화권에서의 소통 가능성, 언어의 기능성,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 왜곡의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역 등을 통해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한다. 궁극적으로 문화의 고유성이 원음과 의미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음역 또는 음의겸역을 지향한다.

예) 고사 告祀, 가곡 歌曲

○ 의역:

의역으로 번역된 대상은 한자어와 순우리말 용어가 모두 포함되었지만 양적으로는 순우리말 용어의 비중이 훨씬 높다. 의역은 번역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높아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는바 필요할 경우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풀어쓰기 형식의 설명식 의미역을 지양하며, 문화용어 분야 및 기능별로 의역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의역 중 소통성이 강조되는 음식명은 현지에서의 수용성과 함께 문화의 고유성을 잃지 않도록 번역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1. 순우리말 음식명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짧게 표현하되 맛, 조리방법, 주재료, 모양 순서로 의역한다.

예) 제육덮밥 辣炒猪肉盖饭

2. 순우리말 명칭만으로 해당 음식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 음식의 주재료와 조리 방법, 먹는 방법을 기초로 하여 의역한다.

예) 순대 血肠, 곰탕 精熬牛骨汤, 보쌈 菜包肉

3. 한자어로 이뤄진 한식명은 한국 고유의 음식명을 살리기 위해 한자를 살려 간체자로 표기한다. 단,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를 이용하여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예) 수정과 水正果 (生姜桂皮茶)

4. 이미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한식명은 관용적인 표기를 존중하여 이를 따른다.

예) 된장찌개 大醬汤, 불고기 烤牛肉, 물냉면 冷面

- 한중 양국이 공유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해당 용어의 의미와 중국어 대응어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할 경우 대응역한다.

예) 부채 扇子, 밥 米饭, 돌 周岁

- 언어의 경제성, 의미의 정확성, 전달의 효과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설명식 의미역은 번역어로서 성립하지 않으며, 어절이 아닌 어휘 차원의 번역어 도출을 지향한다.

예) 김치 냉장고 盛放辛奇的冰箱 → 辛奇冰箱 또는 泡菜冰箱

- 문화용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번역어 앞에 ‘한국(韩国)’, ‘한식(韩式)’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유사한 대응어를 빌려 번역하거나, 한국의 것임을 강조해야 하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

예) 씨름 韩式摔跤, 약식 韩式八宝饭

○ 혼역:

혼역된 문화용어는 대부분 복합어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결합된

특징을 갖는다. 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번역 방안을 모색하되, 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원칙적으로 번역어의 통일성을 지향한다.

- 문화용어 중 ‘~축제’의 경우 전부요소인 지역명과 해당 축제의 주제는 개별성을 드러내되, 후부요소인 ‘축제’의 번역어를 표준화한다. 지역명의 경우 한자어는 간체자로, 순우리말일 경우 음역 혹은 음의점역한다. 축제의 주제어는 의미역 혹은 대응역하며 후부요소인 축제는 혼재되어 있는 ‘节’ 와 ‘庆典’ 중 ‘节’로 통일한다.

예) 울산고래축제 蔚山鲸鱼节, 경포해돋이축제 镜浦海上日出节

- ‘~놀이’의 경우, 후부요소지만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와 무형문화재 등에 포함된 연희와 공연 성격을 갖는 ‘~놀이’를 구분하여 번역한다.

○ 음역과 음의점역:

음역과 음의점역은 한국어 문화용어에 담긴 문화적 고유성을 원음과 의미를 결합하여 전달할 수 있는 번역 방안으로 권장된다. 음역 및 음의점역의 확대를 위해 중국어 음역을 위한 음역표 마련 등 관련 기준과 지침의 정립이 필요하다.

- 한자어와 순우리말 문화용어 중 기본적으로 한자역과 대응역을 통해 문화의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는 용어를 제외하고, 우리 문화의 고유성

이 드러나야 하는 문화용어는 원칙적으로 향후 마련될 음역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음역과 음의검역을 지향한다.

- 한국 고유의 문화를 나타내는 용어는 도착어 문화권에서 유사한 대응어가 있더라도,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의미의 일치성, 전달의 효과성, 문화적 함의의 중첩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대한 음역 혹은 음의검역한다.

예) 김치 辛奇, 대보름 大望日

- 문화용어를 음역할 경우 초기에는 음역어의 이해와 보급을 위해 음역어와 괄호 안 설명을 병기할 수 있으나 괄호 안 설명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음역어의 보급 확산에 따라 점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 문화용어의 원음 표기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단독의 번역어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만약 용어의 원음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중국어로 음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너비아니 neobiani (×)

4.3 문화용어 일본어 번역 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제안

4.3.1 문화용어 일본어 번역 실태 조사 결과

총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849개의 문화용어를 선별하였으며, 그 중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는 577개였다. 추출된 577개 문화용어를 대상으로 일본어 번역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문화용어에 대해 복수 기관에서 각기 같거나 다른 유형으로 번역된 ‘혼재’가 포함되어, 실제 번역어의 총계는 문화용어의 대역어 총계인 577개보다 많은 616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재 양상을 보인 번역 비중이 9.8 퍼센트, 둘 이상의 조사 대상 기관에서 동일하게 번역되어 통일성을 보인 번역 비중이 18.6 퍼센트, 단일 기관에서만 번역된 비중이 71.6 퍼센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문화용어 일본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와 비중 (출발어 기준)
복수 기관 번역	혼재	55 (9.8%)
	통일	104 (18.6%)
단일 기관 번역		401 (71.6%)
총계		560 ¹⁷⁾ (100%)

17) 본 보고서의 번역 실태 분석 과정에서 번역 유형에 속하지 않는 오역은 양적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실태 분석 결과 총계인 560개는 오역 17개를 제외한 개수이다.

번역 실태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혼재의 양상은 동일한 번역 유형에서 나타난 혼재와 다양한 번역 유형을 통해 번역되면서 나타난 혼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하나의 용어가 단일한 유형으로 번역되었지만 혼재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문화용어 ‘설날’의 경우 두 기관에서 모두 동일하게 대응어로 번역되었으나 번역어는 각각 ‘正月’, ‘旧正月’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응역이라는 동일한 유형으로 번역되었으나 각 기관의 번역어가 서로 다른 경우, 단일 유형 혼재라 칭한다. 후자의 경우는 하나의 용어에 대해 기관별로 번역 유형이 다른 것으로, 문화용어 ‘대금’이 기관에 따라 한자역 ‘大笏’, 한자역과 음역의 병기 ‘大笏(テグム)’, 한자역과 설명식 의미역의 병기 ‘大笏(大きな横笛)’로 각기 다르게 번역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재 양상에 대해 다중 유형 혼재라 칭한다. 본 보고서에서 혼재는 단일 유형과 다중 유형 혼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일 혹은 다중 번역 유형을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번역된 경우를 혼재로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통일은 번역 유형을 막론하고 조사 대상 기관에서 문화용어가 동일하게 번역된 것을 지칭하며 ‘한옥’이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박물관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동일하게 ‘韓屋’로 번역되고, ‘국악’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동일하게 ‘国楽’로 번역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일 기관 번역은 하나의 기관에서만 번역되어 하나의 번역어만 존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문화용어 번역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번역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때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가 되는 혼재 양상과 제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통일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혼재

<표 4-12> 번역 혼재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와 비중 (출발어 기준)	세부 유형	문화용어 개수 (출발어 기준)	번역 유형	번역어 개수 (도착어 기준)
혼재	55 (9.8%)	단일유형	6	의역	4
				한자역	2
		다중유형	49	한자역	41
				음역	31
				의역	37
				혼역	4

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혼재 양상의 경우, 단일유형 혼재는 그 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이 다중유형 혼재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유형 혼재의 경우 한자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문화용어의 한자어 표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한자역으로 번역이 이루어졌고, 한자역만으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번역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음역이나 설명식 의미역 등 다른 유형으로 번역을 시도한 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유형의 혼재 양상을 보인 문화용어를 살펴보면 한자어 용어가 31개, 순우리말 용어가 24개로 한자어의 비중이 약간 높다. 특히 한자어 용어 31개 중 9개만이 일본어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우리말 용어의 한자 표기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을 의미하는 ‘歌曲’을 그대로 한자역하여 ‘歌曲’로 번역하면 ‘사람의 목소리로 불리는 악곡’이라는 의미밖에 전달하지 못한다. 또 ‘사대부’를 우리말 한자어 ‘士大夫’로 그대로 한자역하면 부분적인 의미만을 전달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의미 전달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관에 따라

한자역 외의 설명식 의미역이나 대응역으로 번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士大夫’의 경우 그대로 ‘士大夫’로 한자역을 한 기관도 있지만 의미의 소통성을 높이고자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하여 ‘士大夫(儒教的文官官僚)’로 번역한 기관도 있는데 이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여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한 것이다.

음역과 다른 번역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선비(ソンビ)’, ‘탈춤(タルチュム)’ 등과 같은 용어는 같은 음역이라고 해도 ‘김치(キムチ)’와 같이 널리 보급된 용어와는 달리 음역만으로 의미까지 전달하지는 못하므로 의미면에서의 소통성을 확보하고자 음역 외의 다른 번역 유형으로도 번역된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된다.

대응역과 다른 유형과의 혼재는 특히 ‘추석(お盆)’, ‘세배(お辞儀)’, ‘설날(正月)’, ‘임진왜란(文祿・慶長の役)’ 등 일본과 유사하거나 대응하는 문화용어가 존재하는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경우 추석을 ‘秋夕(チュソク)’로 번역하여 원음을 살려 번역하거나 ‘秋夕(旧暦8月15日)’처럼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번역할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 가지 번역 유형으로 문화용어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번역에 충분한 문화적 함의를 담아내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기관별로 번역 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태 분석을 통해 얻은 사실은 향후 번역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하나의 번역 유형을 선택할 때 그에 따르는 문제점 및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데 부분적인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 통일

<표 4-13> 번역 통일 양상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번역 양상	개수와 비중 (출발어기준)	번역 유형	번역어 개수 (도착어기준)
통일	104 (18.6%)	한자역	69
		의역	19
		음역	10
		혼역	6

통일은 복수 기관에서 동일하게 번역된 경우를 지칭하는데, 실태 분석 결과 한자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자역한 문화용어 중 통일된 번역 경향을 보인 용어의 대부분은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훈민정음(訓民正音)’, ‘삼국유사(三國遺事)’, ‘동의보감(東醫寶鑑)’, ‘서편제(西便制)’ 등과 같이 문화적 고유성을 갖는 한자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한 한자 문화권이라고 해도 우리말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어로 사용했을 때 번역어로서 유의미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한자역이 유의미한 경우는 한자역이 바로 대응어가 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귀신을 ‘鬼神’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士大夫’처럼 목표 문화권에서 부분적인 의미만이 전달되는 번역어가 되거나, ‘歌曲’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등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처럼 한자역이 유의미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고려한 번역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자역이 일본어에서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경우와 대응역에서 통일된 번역 방식을 취한 용어들은 주로 ‘바둑(囲碁)’, ‘사당(祠堂)’, ‘죽(お粥)’, ‘두부(豆腐)’, ‘위패(位牌)’, ‘산수화(山水畵)’, ‘보살(菩薩)’ 등 한국과

일본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문물과 관련된 용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 유형상 한자역과 대응역에 속하는 것이 많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한자역과 대응역 중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드러난 점으로 볼 때, 내용 분석의 결과에 초점을 두어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외에 문화용어 일본어 번역 실태 분석 결과 총 17개의 오역이 발견되었다. 우선 오역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유형과 단순한 표기 오류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먼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예로는 ‘안방(居間)’, ‘안채(母屋)’, ‘장독대(甕)’, ‘웃고름(結び紐)’이 있다. 이 경우 모두 순우리말 용어로 이를 나타낼 한자어나 적절한 대응어가 없다. ‘안방’의 경우 ‘거실’에 해당하는 일본어로 번역하여 의미가 왜곡되었다. ‘안채’는 주 건물과 부속 건물로 나뉘어져 번역하고 있는데 주 건물을 일컫는 용어는 ‘안채’가 나타내는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주요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한자와 순우리말로 구성된 ‘장독대’를 항아리를 의미하는 ‘甕’로 번역한 것은 부분적인 의미의 전달에 그친 예이다. 또한 ‘환갑’은 해당하는 대응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 ‘還甲’으로 번역하였다. 이는 일본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한자어가 쓰일 것이라는 오해에서 발생한 오역이다. 다음으로 표기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식 한자어로 변환하지 않은 ‘불국사(佛國寺)’와 틀린 한자로 표기한 ‘을미사변(乙巳事變)’으로, 이는 각기 ‘仏国寺’와 ‘乙未事變’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표기 오류는 세심한 주의를 통해 피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의미의 정확성과 관련된 문제, 특히 문화용어의 번역에서는 의미의 왜곡이 단순한 의미적 차이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함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4.3.2 문화용어 번역 유형

총 9개 조사 기관에서 추출된 총 577개의 문화용어를 대상으로 일본어 번역 실태를 유형화해 보면 한자역, 의역, 음역, 혼역으로 분류되고 이 중 의역의 하위 유형으로 대응역과 설명식 의미역이 있다. 단,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용어의 실제 번역된 유형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문화용어(출발어)가 아닌 번역어(도착어)를 기준으로 번역 유형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번역 유형의 총합에는 하나의 문화용어에 대해 복수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번역한 유형들을 각각의 번역 유형으로 집계하였으므로 번역어 기준으로 총 616개가 된다. 한자역이 53.90 퍼센트로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역 19.15 퍼센트(대응역 12.99 퍼센트, 설명식 의미역 6.16 퍼센트), 음역 13.96 퍼센트, 혼역이 12.99 퍼센트로 나타났다.

<표 4-14> 번역 유형별 개수와 비중

번역 유형 구분		번역어의 개수	비중 (혼재 포함)
한자역		332	53.90%
의역	대응역	80	12.99%
	설명식 의미역	38	6.16%
음역		86	13.96%
혼역		80	12.99%
계		616	100%

본 보고서의 양적 분석 결과에 적용된 번역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자역은 문화용어를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해당 용어의 한자로 번역한 것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철릭(天翼)’과 같이 일본에 없는 개념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경우, ‘전교(伝教)’와 같이 동일한 용어가

일본에도 있으나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귀신(鬼神)’과 같이 동일한 의미의 대응어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의역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유형의 통칭으로 의역의 형태 및 방식에 따라 다시 대응역과 설명식 의미역으로 나뉜다. 먼저 대응역은 한국어 문화용어를 일본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번역한 경우이다. ‘간장’을 ‘醬油’로 번역한 것이 그 예이다. 설명식 의미역은 ‘굿’을 ‘巫女の儀式’로 번역한 것과 같이 한국어 문화용어를 두 개 이상의 일본어 어휘로 풀어서 설명한 경우를 지칭한다. 음역은 우리말 용어의 원음을 일본어의 가타카나로 표기하여 번역한 경우로 ‘김치’를 ‘キムチ’로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혼역은 ‘남사당놀이’를 ‘男寺堂遊び’로 번역한 것과 같이 대응어가 없는 경우, 설명식 의미역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용어를 의미 단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한자역이나 대응역, 음역 등 각각의 번역 방식을 적용하여 번역한 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번역된 경우를 지칭한다.

<표 4-15> 번역 유형 개념 설명과 예시

번역 유형		개념	예시
한자역		해당 용어가 한자어로,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 경우 1) 일본에 없는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냄. 2)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됨. 3) 일본어에서 동일한 의미의 대응어가 됨.	1) 천력 天翼 2) 전교 伝教 3) 귀신 鬼神
의역	대응역	해당 용어를 일본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대응어로 번역한 경우	간장 醬油
	설명식 의미역	해당 용어의 의미를 두 개 이상의 어휘로 풀어 설명한 경우	굿 巫女の儀式
음역		해당 용어의 원음을 일본어의 가타카나로 표기하여 번역한 경우	김치 キムチ

혼역	해당 용어를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번역 유형의 결합으로 번역한 경우	남사당놀이 男寺堂遊び (한자역+대응어)
----	--	-----------------------------

4.3.3 번역 유형별 분석

문화용어 번역 양상에서 나타난 번역 유형의 특징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 한자역

한자역은 9개 기관의 누리집에 등장한 문화용어의 번역 유형 중 53.90 퍼센트로, 번역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자역의 대상이 된 문화용어의 특징은 먼저 해당 용어가 한자어인 경우로, 각 용어가 포함되는 범주는 예술(음악, 미술, 문학, 무용 등), 의례, 무형·유형 문화재, 건축, 역사기록물, 역사적 사건, 의례, 유적, 제도, 세시풍속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이러한 문화용어의 한자역은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전달하면서도 의미에 있어 일정한 소통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한자역이 일본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대응어가 되는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 유래된 문물, 과거의 유물·유적 중 한국과 일본에 정착하여 공유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능(陵)’, ‘칠석(七夕)’, ‘동궁(東宮)’, ‘풍수(風水)’, ‘동지(冬至)’ 등이 있으며, ‘보살(菩薩)’, ‘사리병(舍利瓶)’, ‘사리공(舍利孔)’, ‘사리호(舍利壺)’, ‘극락(極樂)’ 등과 같은 불교 관련 용어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두부(豆腐)’, ‘병풍(屏風)’ 등이 이에 속한다. 전체 문화용어 중 한자역이 대응어가 된 63

개 어휘를 시대순으로 다시 구분하여 보면, 과거(71.18%), 현재(27.11%)로 과거의 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자역 중 일본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의 경우 의미의 왜곡 없이 소통될 수 있지만, 이 번역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퍼센트로 ‘설명식 의미역’에 이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용어 중 한자역이 곧 대응어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자역된 용어 중에는 부분적으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설명이 추가되지 않아도 ‘-図’, ‘-経’, ‘-殿’, ‘-門’, ‘-歌’, ‘-寺’ 등의 후부(後部)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음역은 번역어 다음에 설명식 의미역이나 대응역을 추가하여 의미를 명시화해야 소통성이 보장되지만, 한자역의 경우, 표의문자의 특성상 문자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설명식 의미역이나 대응역을 병기하지 않아도 소통이 가능하다.

상기의 특징과 장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한자권에 속해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첫째, 한자어를 일본식 한자로 전환하여 의미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 전교(伝教): 임금이 내린 명령. 교서(敎書)를 전함(한국고전용어사전).

伝教: 教法を教えること(교법을 가르치는 것)(広辞苑).

가곡(歌曲):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 시조의 시를 5장 형식으로, 피리·젓대·가야금·거문고·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른다. 평조와 계면조 두 음계에 남창과 여창의 구분이 있다(표준국어대사전).

歌曲: 独唱曲、重唱曲、合唱曲など人声によって歌われる楽曲. 韻文で

書かれた戯曲(독창곡, 중창곡, 합창곡 등 사람의 목소리로 불리는 악곡. 운문으로 쓰인 희곡)(広辞苑).

둘째, 일부 한자어를 일본식 한자어로 전환했을 때 의미를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예) 정대업 定大業, 환갑 還甲, 토정비결 土亭秘訣, 보태평 保太平 등

셋째, 한자역만 제공할 경우, 해당 용어에 대해 일본어 사용자는 일본식 한자 발음으로 인식한다. 특히 일본어에서는 하나의 한자가 음독과 훈독으로 다 사용되며, 음독의 경우 하나의 한자에 다양한 독음이 존재하여 한자로만 표기하면 문자 표기와 음성의 상관관계가 약하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인명, 지명과 같은 한자어에는 한자 윗부분에 해당 어휘의 발음을 표기하고, 외래어나 외국어의 경우 로마자 표기는 한정되며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한자역만 제공할 경우 일본어 사용자는 해당 용어를 구성하는 각 한자의 음독과 훈독을 포함한 여러 독음을 조합하여 일본식의 한자 발음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 근정전 勤政殿 - きんせいでん

동빙고 東氷庫 - とうひょうこ, ひがしひょうこ

다음은 잘못된 표기·오역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자역의 표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해당 한자어를 일본식 한자로 표기하지 않은 점이다.

예) 전복 戰服(×) → 戰服(○)

불국사 佛國寺(×) → 仏国寺(○)

또한 용어 통일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판소리 ‘홍보가’의 경우 기관에 따라 ‘홍부가(興夫歌)’, ‘홍보가(興甫歌)’가 혼재하는데, 출전이 분명한 문헌 등을 기준으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홍보가’로 실려 있다.

예) 홍부가(興夫歌) 홍보가(興甫歌)

앞서 제기한 한자역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음역과의 병기를 들 수 있다. 한자역만 주어졌을 때 일본식 발음으로 인식해서 실제 음성적으로 소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한자역이 곧 대응어가 되는 경우에는 의미적 소통은 이미 확보되었으므로, 음역과의 병기를 통해 음성적 소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또 한자역이 있어도 의미의 왜곡이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미 전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한자역 대신 설명식 의미역을 제공할 수 있다.

18) 이주리에(2013: 66)는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일본인의 입장에서 한자와 가타카나의 병기가 가장 이해하기 쉽다는 것, 지면의 제약 등으로 한자만 제시되면 일본식으로 읽게 되고, 안내방송 등에 나오는 음성적 측면의 한국 문화소와 일치하게 되지 않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 의역

● 대응역

한자역으로 번역된 용어가 비교적 과거의 문물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면 대응역으로 번역된 용어는 전통적인 것이 46.42 퍼센트, 시대를 아울러 과거와 현재에 모두 존재하였으며 양국 모두의 생활에 뿌리내린 것이 53.57 퍼센트로 양적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전자의 예로는 ‘가마(輿)’, ‘비녀(かんざし)’, ‘다듬이(砧)’, ‘버선(足袋)’, ‘짚신(草鞋)’과 같이 그 기능과 형태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후자의 예로는 ‘회(刺身)’, ‘밥(ご飯)’, ‘반찬(おかず)’, ‘목욕탕(浴場)’, ‘간장(醤油)’ 등이 나타났는데, 이들 용어의 특징으로는 현재 생활의 일부분으로 뿌리내린 일반적인 용어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용어라도 한국에만 있는 문물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를 대응역할 경우 의미의 일부만 전달하거나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전통악기인 ‘소고’를 서양의 작은북을 의미하는 ‘小太鼓’로 번역한 것은 사전에 실린 북수의 의미 중 해당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수저’를 ‘スプーン’으로 번역한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일컫는 말이 없는 일본에서 한쪽 의미만을 나타내는 용어로 전달하여 의미의 부분적 전달에 그친 것으로 의미의 소통에 있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응역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적 함의가 강한 용어가 일본의 고유성을 가진 용어로 번역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설날(正月·旧正月)’, ‘추석(お盆)’과 같이 우리 명절을 지칭하는 문화용어를 해당 목표문화권의 대응어로 번역하면 고유의 문화적 함의가 사라지

고 목표문화권의 명절이 가지는 함의로 대치되어 인식될 수 있다. 또, ‘세배’를 ‘お辞儀’로 번역한 것은 문화적 함의 전달에 실패한 경우로 사전적 의미의 극히 일부만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용어의 대응역만 제시한 것이 문화의 고유성이나 의미의 손실·왜곡을 초래할 경우, 음역과 의미의 소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역의 병기를 제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용어 차원의 번역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설명식 의미역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용어 자체가 가진 어휘의 사전적 의미, 내포된 고유성, 함의를 살려 용어 차원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창의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용어를 만들거나, 출발문화권의 용어를 음소 단위나 의미 단위로 분절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문자나 어휘의 조합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인의 관점에서 ‘소통성’과 ‘정확성’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시킬 수 없는 번역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역과 병기되는 의미역의 경우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한다는 데 초점을 두어, 번역어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과 번역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보다 현실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설명식 의미역

설명식 의미역은 문화용어의 의미를 두 어휘 이상의 일본어로 풀어서 설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어휘가 설명적 술어를 내포하는 ‘の’로 연결된 구성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돌(一歳の誕生日)’, ‘한지장(韓紙でつくられた棚)’, ‘장승(お守りの木像)’ 등이 그 예이다. 설명식 의미역으로 번역된 용어는 음역이나 한자역, 혼역 등의 방법으로 바꿔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의미의 전달에 중점을 두고 풀어서 설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번역

유형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음역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있어 음역과 의미역을 병행할 경우, 음역을 표기한 뒤 괄호를 이용하여 설명식 의미역을 덧붙여주는 것을 제안한다.

○ 음역

음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혼재 양상에 포함된 것까지 더했을 경우 13.96 퍼센트를 차지한다. 음역으로 번역된 문화용어는 조악¹⁹⁾(造岳)을 제외한 모든 용어가 순우리말 용어이다. 이 ‘조악’의 경우 사전에 ‘주악’의 잘못된 표기라고 나와 있는바, 음역을 할 경우 현재와 같이 ‘조악’에 대한 음역이 아니라 ‘주악’에 대한 음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음역은 가타카나로 표기되는데 그 자체로서 수용자인 일본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용어가 외래어, 외국의 고유명사인 것으로 인식된다. 가타카나는 음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표기체계이고 외래어,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는 가타카나의 표기 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단, 순우리말을 가타카나로 표기할 때,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모음이나 받침²⁰⁾, 용어의 첫머리에 오는 탁음과 청음의 구별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음역이 음성적 소통성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한국어와 가장 가까운 소리로 표기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

단, 음역만 제시했을 때는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완책

19) ‘조악’으로 검색했을 때 ‘다음 국어사전’에 ‘주악(웃기떡의 하나)의 잘못’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조악’은 올라있지 않고 ‘주악’만 실렸는데 그 의미는 ‘웃기떡의 하나. 찹쌀가루에 대추를 이겨 섞고 꿀에 반죽하여 깨소나 팔소를 넣어 송편처럼 만든 다음, 기름에 지진다.’로 풀이되어 있다.

20) 분석 대상이 된 문화용어 중, 받침으로 인한 혼선이 드러난 것으로는 ‘긱’이 있는데, ‘긱クッ’, ‘용왕긱 龍王グッ’, ‘영등긱 靈登クッ’, ‘관긱 管グ’에서 보는 것처럼 3가지 유형이 사용되었다.

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의 병기인데, 의미역의 병기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음역만 제시하는 것을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설명식 의미역은 음역된 용어에 대한 정보 전달을 추가함으로써 수용자의 이해를 돕는 보조 장치로 보도록 한다.

다음은 순우리말에 설명식 의미역을 제시하는 경우, 기존에 제시된 설명식 의미역을 중심으로 그 원리와 문제점, 대안, 고려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순우리말을 의미역 하는 데 있어, 의미역을 용어 단위로 번역하기 어려운 점에 관해서는 앞서 기술한 ‘대응역’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이하에서는 설명식 의미역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수 있고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얻고자, 순우리말 용어 중 고유의 악기나 명절과 관련된 어휘가 현재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먼저, ‘거문고’는 다음 일본어사전에서 ‘コムンゴ(弦楽器の一つ)’, 네이버 일본어사전에서 ‘コムンゴ’, ‘(韓國の)琴’로 번역되었고, ‘쟁과리’는 다음 일본어사전에서 ‘手持ち鉦’, 네이버 일본어사전에서 ‘鉦’로, ‘징’도 ‘鉦’로 번역되었다. 또한 ‘설날’은 다음 일본어사전과 네이버 일본어사전에서 모두 ‘元旦, 元日’로 번역되었다. 이 항목만으로 살펴볼 때, 명절은 무형의 것, 악기는 유형의 것인데 번역어를 보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해당 문화용어가 가진 내적인 성격이나 함의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 요소 중 가장 큰 특징을 간결하게 번역하거나 해당 용어의 대응어로 번역하였다. ‘설날’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정월 초하룻날’,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음력 정월 초하룻날’로 기술되어 있다. 사전적 정의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주관적이거나 판단이 요구되는 내용을 배제한 내용이 번역어에서 제시되었다.

또 거문고의 경우에도 사전을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우

리나라 현악기의 하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의 하나’, 『한겨레음악대사전』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현악기의 하나’로 기술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악기 종류인 쟁과리나 징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쟁과리에 대해 ‘풍물놀이와 무악 따위에 사용하는 타악기의 하나. 놋쇠로 만들어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징보다 작으며 주로 풍물놀이에서 상쇠가 치고 북과 함께 곁에도 쓴다.’로 설명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응어로 사용한 ‘鉦’라는 한자는 일본의 상용한자²¹⁾에 포함되지 않는 한자이므로 일본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의미역을 병기하는 것이므로 더 쉬운 한자나 어휘의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쟁과리나 징의 경우, 악기 분류 체계에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기는 연주법에 따라 관악기·현악기·타악기로 나누고, 다시 악기의 재질에 따라 나누며 더 나아가 소리를 내는 원리를 기준으로 상세히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하위 범주가 아닌 상위 범주인 ‘타악기’를 사용하고 쟁과리나 징의 재질, 악기의 크기 구분과 같은 부연되는 어휘를 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쟁과리의 설명식 의미역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다른 재질의 타악기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명식 의미역은 사실 번역자의 주관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므로 번역된 내용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기 어려우며 다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명식 의미역의 내용을 가능한 일관성 있게 하고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어휘에 대해 다양한 번역 사례를 모아 그 중 가

21) 상용한자란, 문부과학성 문화심의회 국어분과회의 답신을 바탕으로 내각고시 ‘상용한자표’로 제시된 2136자/4388음훈[2352음·2036훈]의 한자로 ‘법령, 공용문서, 신문, 잡지, 방송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현대 국어를 표기할 경우 사용하는 한자의 기준’이다. 이처럼 일반 생활에서 상용한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용한자 외의 한자는 다른 말로 바꾸거나, 해당 한자만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 전달력 있는 내용을 선별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용어들의 의미역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찾아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용어의 의미역을 다시 정리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상기의 ‘팽과리’의 번역 제안에서 설명한 방식이 바로 이러한 절차로 정리된 것이다.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누리집에서 추출한 순우리말 용어 중 의미역이 제시된 것의 예로는 ‘보릿고개 ポリコゲ (麦峠)’, ‘선비 ソンビ, ソンビ (学識はあるが官職につかない人) · ソンビ(学者)’를 들 수 있다. ‘보릿고개’의 경우 주어진 혼역으로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번역이며, ‘선비’의 경우는 번역어가 다양하게 나타난 사례이다. 설명식 의미역의 경우, 내용이 길수록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형태적 요건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과연 설명식 의미역의 제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번역을 제시하는 측의 판단에 맡길 문제이다.

사실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소통성, 정확성 확보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용어의 경제성이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고려와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설명식 의미역은 어느 정도 일관성과 전달력을 갖춘 내용으로 정리되더라도 용어가 사용되는 목적이나 적용 매체에 따라 번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이 가능한 ‘표기’와 달리 ‘설명식 의미역’은 표현의 범위가 다양하여 기존의 번역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에 대한 유의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설명식 의미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에 대한 합의와 타당성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의미역을 생각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

미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종류·보급 정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보다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로 번역을 담당하는 측, 언어학 전문가, 번역학 전문가 등이 다각도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 현실적인 수용성의 여부에 대한 고찰을 위해 사전뿐만 아니라, 일본 포털, 신문, 일본 국립국어연구소 말뭉치 검색, 수용자인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의 검증 등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 혼역

혼역은 두 개 이상의 번역 유형이 적용된 경우를 지칭하여, 이에 속하는 문화용어의 특징은 모두 두 개 이상의 어휘가 결합된 복합어라는 점이다. 한국어 어휘 가운데 상당수가 복합어로 이루어졌으나 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대응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성하고 있는 어휘를 의미 단위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대응어나 한자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자역 또는 음역의 결합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그 구성 방식은 한자역+한자역+대응역, 한자역+음역+대응역, 한자역+대응역+대응역, 한자역+대응역, 한자역+음역 등 다양하다.

이러한 구성을 보이는 문화용어로는 ‘~축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타령’, ‘~놀이’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축제’는 ‘강화빙어축제(江華ワカサギ祭り)’와 같이 ‘지명(한자표기)+축제 주제(음역·한자역·대응역)+祭り(축제의 대응어)’의 구성으로 번역되며, 이 구성에서 ‘지명’이 전부요소²²⁾이고 ‘축제’가 후부요소²³⁾라는 공통적인 형태는 갖추었

22) “전부(前部)요소”란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을 뜻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

23) “후부(後部)요소”란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제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을 뜻한다. 출처:

으나 이렇게 표기한 번역은 ‘광안리어방축제(広安里漁坊祭)’처럼 음성적 소통성과 의미적 소통성 중 어느 한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 ‘~놀이’의 경우, ‘탈놀이(仮面遊び・タルノリ)’, ‘사물놀이(サムル遊び・サムルノリ)’와 같이 번역 유형이 혼재되거나 의미면에서 차이가 큰 대응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그 성격이 각기 다른 ‘탈놀이’이나 ‘사물놀이’, ‘풍물놀이’를 모두 ‘-遊び’로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한 번역이기도 하다.

‘~타령’ 또한 ‘타령이름(한자역·음역)+打令’으로 번역되어 음성적 소통성이나 의미적 소통성 중 일부만 충족시키거나 양쪽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기술한 ‘음역’과 ‘대응역’에 대해 설명식 의미역을 제시하는 방안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음역을 지향하지만, 그 과도기에 있어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하는 번역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4.3.4 문화용어 번역 방안 제안

본 보고서에서는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누리집의 문화용어 일본어 번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 방안을 제안한다.

○ 한자역

한자역의 번역 대상은 한자어로, 한자역을 통해 문화적 고유성과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그대로 한자역을 하되 음성적 소통성을 위해 음역을 병기한다. 한자역으로 인해 문화적 고유성이 훼손되고 소통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

불가한 경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과 함께 병기한다.

· 한자역된 문화용어 중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우리 문화의 고유성과 소통성에 중점을 두어 ‘음역+(한자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근정전 クンジョンジョン(勤政殿)

동빙고 トンビンゴ(東氷庫)

· 한자역된 문화용어 중 일본어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의미의 정확성과 음성적 소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역+(설명식 의미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전교 チョンギョ(王様からの命令)

· 한자역된 문화용어 중 일본어에서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설명식 의미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철릭 チョン리ク (武官の制服)

· 한자역이 일본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의미적 소통성은 확보되었으므로 음성적 소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역+(한자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풍수 プンス(風水), 동지 トンジ(冬至)

○ 의역

• 대응역

대응역된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 용어와 우리 문물의 고유성을 강하게 내포한 용어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고유성과 전통성을 담은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과 병기하는 것으로 한다.

·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문물로 인하여 한국어 문화용어의 의미가 대응어와 일치하는 경우,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음성적 소통성 증진을 위하여 ‘음역+(대응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부채 プチェ(扇子), 간장 칸쟈ン(醬油)

· 대응역으로는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설명식 의미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안채 アンチェ(女性の使用する建物)

• 설명식 의미역

설명식 의미역으로 번역된 문화용어는 대부분 순우리말 용어로서 대역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설명식 의미역으로 번역된 용어는 음역과 병기한다. 설명식 의미역 중 그 내용이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며 ‘음역+(설명식 의미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굿 クッ(祈念の儀式)

· 설명식 의미역의 내용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설명식 의미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사랑채 サランチェ(主人の座敷)

→ サランチェ(男性の居住空間と客間としての建物)

○ 음역

음역은 문화적 고유성을 원음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 음역된 번역어 중 의미적 소통성까지 갖추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과 병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순우리말 문화용어의 경우 의미의 소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설명식 의미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제기차기 チェギチャギ(伝統的ゲームの一つ)

팽과리 クェングァリ(金属製の打楽器の一種)

· 음역한 용어가 이미 일본에서 한국의 문화적 의미를 내포한 외래어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의 병기에서 제외

하여 음역만으로 번역한다.

예) 온돌 온돌, 사물놀이 サムルノリ

○ 혼역

혼역된 문화용어는 대부분 복합어로 전부요소나 후부요소, 혹은 둘 다 포함된 특징을 보인다. 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제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번역하여 번역어의 통일성을 지향한다.

· ‘~놀이’는 형태적으로는 후부요소이지만 놀이의 구체적인 성격을 구분하여 적합한 대응어로 번역하거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설명식 의미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탈놀이 タルノリ (仮面劇の一種)

남사당놀이 ナムサダンノリ(民俗芸能の一種)

· ‘~축제’의 경우, 지역의 특색을 축제 주제로 할 때, 기존의 혼역을 의미역의 내용으로 삼는다. 즉, 음역 뒤에 ‘지역명+축제 주제+祭り’의 형태로 번역한다. 단, 같은 축제라 하더라도 ‘~문학축제’ 등과 같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의 경우, 번역어를 ‘~祭’와 같이 의미에 적합한 용어로 바꾸어 ‘음역+(혼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강화빙어축제 カンファビンオチュクジェ (江華ワカサギ祭り)

· ‘~타령’의 경우, 타령 앞에 오는 명사는 타령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고유명사로 간주하고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설명식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설명식 의미역)’의 방식으로 번역한다.

예) 도라지타령 トラジタリョン (伝統民謡の一種)

V. 문화용어 번역 중장기 계획안

본 장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 언어별 번역 실태 조사를 토대로 제안된 번역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의 실제 적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문화용어란 ‘한국인의 삶 혹은 삶의 양식과 관련된 개념어’로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문화 외에 외래문화에서 유래하였으나 우리 고유의 문화로 정착하고 뿌리내린 개념어를 포괄한다. 따라서 한국 고유의 문화적 함의를 내포하는 문화용어는 정확한 의미와 전통성, 독창성 등을 반영하여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용어에 대한 번역 실태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번역어, 의미의 왜곡이 의심되는 번역어, 또는 동일 개념어에 대한 다양한 번역어의 혼재로 인해 번역의 소통성, 정확성, 경제성,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언어별 번역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중국어와 일본어로의 번역을 위한 음역 기준을 수립한다.

중국에서 발간한 <영중음역기준표>를 참조하여 국제음성기호를 기준으로 <한중음역기준표>를 만든다.

교육부의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을 수정 보완한다.

중국어 음의검역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문화용어의 분야별, 기능별 영·중·일 의역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화 방안에 따라 기관별로 문화용어 표준 번역을 확정한다.

기타 기관에서 동일 용어의 번역 시 확정된 표준 번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분야별 문화용어 사전을 편찬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번역 표준화 원칙을 문화 이외의 다른 범주로 확대해 나간다.

VI.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문화용어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확정하고 본 연구의 조사 대상 9개 기관의 누리집에 게시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번역 실태를 조사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용어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유형 특징을 도출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문화용어의 번역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언어별 문화용어의 번역 실태와 번역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번역의 경우, 총 9개 기관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932개 중 영어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 778개를 추출하였다. 수집된 문화용어에 대한 영어 번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번역 유형은 크게 1) 음역(14.8%), 2) 의역(4.1%), 3) 음역 및 의역 병기(41.1%) 세 가지 형태가 확인되었고, 하위 번역의 경우 대응식 의미역(30.7%), 완전음역+설명식 의미역(15.7%), 완전음역(14.8%), 설명식 의미역(13.1%), 완전음역+대응식 의미역(12.5%) 유형을 문화용어 번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번역 유형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문화용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오역으로 나타났는데 문제 유형별 비중은 정보 불충분이 42.9%, 오역이 28.6%, 표기 오류가 20.6%, 혼재가 7.9%로 확인되었다.

번역 방안 제안으로는 먼저 완전음역의 경우, 널리 알려진 문화용어는 완전음역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음역 정보만 제공할 때 독자의 이해를 저해할 경우에는 용어에 담긴 필요한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역하여 제공한다.

대응식 의미역은 표층적 의미만을 번역하여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의미 유추가 가능한 경우에 활용한다. 대응식 의미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불충분이나 정보 오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용어의 특징적 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설명식 의미역은 충분한 소통성은 확보되나 경제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때, 특정 문화용어가 갖는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필수 요소를 번역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음역 및 의역 병기는 완전음역만으로 정보 전달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응식 의미역이나 설명식 의미역으로 정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표기 오류에 관해서는 통일된 로마자 표기법 원칙에 따른 표기를 제안하며, 음운 변화를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혼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기 형식의 일관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표준 시안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동일 기관 내에서는 통일된 번역어가 사용되도록 한다.

둘째, 중국어 번역의 경우, 총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849개의 문화용어를 선별하였으며, 그 중 대역어가 존재하는 용어는 592개이다. 번역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나의 용어에 대해 단일 기관이 번역한 비중이 73%로 압도적으로 높고 복수 기관이 번역한 것 중 기관 간에 통일된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10.7%, 기관 간 다른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16.3%로 확인되었다.

추출된 문화용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번역 유형은 크게 한자역(47.1%), 의역(38.7%), 혼역(12.5%), 음역(1.7%)으로 구분되고, 한자역의 하위 유형에는 한자어 한자역과 한자어 대응역이, 의역의 하위 유형에

는 의미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이 포함된다.

각 번역 유형에 대한 번역 방안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자역의 경우 문화적 고유성과 소통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한자역을 하되, 문화적 고유성이 훼손되고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역 등 다른 번역 방법을 적용하여 최대한 의미를 살려 전달한다. 궁극적으로 문화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고유성과 독창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음역과 음의점역을 지향한다.

의역은 번역자의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높아 혼재 양상이 두드러지므로,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풀어쓰기 형식의 설명식 의미역을 지양하며, 분야와 기능별로 문화용어의 의역 프로세스 표준화를 지향한다.

혼역의 대상은 대부분 복합어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의 구성을 갖는다. 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번역 방안을 모색하고, 후부요소는 해당 용어의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원칙적으로 번역어의 통일성을 지향한다.

음역과 음의점역은 문화용어에 담긴 문화적 고유성을 원음과 의미의 결합으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 방안이다. 단, 음역 및 음의점역의 확대를 위해 중국어 음역을 위한 음역표 마련 등 관련 기준과 지침의 정립이 필요하다. 한자어와 순우리말 문화용어 중 우리 문화의 고유성이 드러나야 하는 문화용어는 향후 마련될 음역 지침에 따라 음역과 음의점역을 제안한다. 문화용어를 음역할 때 초기에는 음역어의 이해와 보급을 위해 음역어와 괄호 안 설명을 병기할 수 있으나 괄호 안 설명은 한시적으로 사용하며 음역어의 보급 및 확산에 따라 점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로마자 표기는 한국어 문화용어의 원음 표기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단독의 번역어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만약 문화

용어의 원음을 강조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중국어로 음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용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번역어 앞에 ‘한국(韩国)’, ‘한식(韩式)’을 붙이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유사한 대응어를 빌려 번역하거나, 한국의 것임을 강조해야 하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

셋째, 일본어 번역의 경우, 총 9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누리집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 정량 및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여 총 849개의 문화용어를 선별하였으며, 그 중 대역어가 존재하는 577개 용어를 대상으로 번역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하나의 용어에 대해 단일 기관이 번역한 비중이 71.6%로 압도적으로 높고 복수 기관이 번역한 것 중 기관 간에 통일된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18.6%, 기관 간 다른 번역 양상을 보인 것은 9.8%이다.

추출된 문화용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번역 유형은 크게, 한자역(53.90%), 의역(19.15%), 음역(14.13%), 혼역(12.99%)으로 구분되며, 그 중 의역은 대응역(12.99%)과 설명식 의미역(6.16%)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번역 유형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의미 전달 혹은 음성적 소통만 가능하거나 의미와 음성적 소통 모두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이에 기존의 번역 방식으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음성적 소통성과 의미적 소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 단, 설명식 의미역의 병기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음역만 제시하는 것을 지향하며 그 과정에서 수용자의 이해를 돕고 음역어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명식 의미역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자역은 음역을 병기하는 것만으로 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면 한자역 대신 음역과 설명식 의미역을 병기한다.

음역은 사전에 등재된 용어이거나 그 의미가 전달될 경우 설명식 의미역 없이 음역만 하도록 한다.

의역은 크게 대응역과 설명식 의미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번역 유형 모두 음역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단,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대응역보다 설명식 의미역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도록 한다.

혼역은 대부분 복합어로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달해야 하는 주요 의미 부분에 대한 의미역을 마련하여 음역 뒤에 병기한다.

이상과 같은 각 언어별 문화용어의 번역 실태와 번역 방안 제안을 토대로 정리한 문화용어의 중장기 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어는 음역 기준에 해당하는 ‘한중 음역 기준표’ 마련과 음의결역 프로세스 표준안 수립이 필요하며 일본어는 교육부의 ‘국어의 가나문자 표기법’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문화용어의 분야별, 기능별로 영·중·일 의역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 표준화 방안에 따라 문화용어 표준 번역을 확정, 기타 기관에서 동일 용어의 번역 시 확정된 표준 번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문화용어 번역의 표준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돕기 위한 분야별 문화용어 사전 편찬도 고려할 만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강우방 외 2005. 『한국 미의 재발견』. 서울: 솔출판사.
- 강현모 2009. 『한국민속과 문화』. 서울: 비움과채움.
- 국립국어연구원 2002. 『우리문화 길라잡이』. 서울: 학고재.
- 김성만 2010. 『정보디자인 모델을 통해 나타나는 User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 김현주 2007. 「상표명 漢譯 기법에 관한 연구-영문 상표명을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24: 473-511.
- 김혜림 2012. 「한중간 음식명 번역양태 비교」. 『통역과 번역』 14(1): 49-69.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
- 송방송 2012.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사.
- 이정주 2006. 『문화적 차이가 사용자 연구 디자인 방법론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에 2013. 「일본어 관광안내문 문화소의 한자 변환 번역에 관한 고찰-일본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日本言語文化』 24: 51-70.
- 임경순 2009.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서울: 서울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임영철 2009. 『한국문화를 일본어로 소개하는 사전』. 서울: 제인앤씨.
- 장애리 2011. 『통번역을 위한 문화능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복진 200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식 백가지』. 서울: 현암사.

- 한상복, 이문웅, 김광억. 1985.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홀, 에드워드. 2000a. 『침묵의 언어』. 최효선 옮김. 서울: 한길사.
- . 2000b. 『문화를 넘어서』. 최효선 옮김. 서울: 한길사.
- House, J. 2006. "Text and context in translation." *Journal of Pragmatics*. (38): 338-358.
- Katan, D. 2009a. "Culture".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Edited by Baker, M. and Saldanha, G, 70-73. London/New York: Routledge.
- . 2009b. "Translation a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Routledge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 Edited by Munday, J, 74-92. London/New York: Routledge.
- Newmark, P. 1988. *Textbook of Translation*. London/New York: Prentice Hall.
- Nida, E. A. 1945. "Linguistics and ethnology in translation problems." *Word* 1: 194-208.
- . 1964. "Linguistics and ethnology in translation-problems" In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Edited by Hymes, Dell H, 90-100. New York: Harper & Row.

사전류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한국관광공사)
 네이트 민족문화대백과
 문화원형 용어사전(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백과(네이버)

인터넷 두산사전

전통향토음식 용어사전(농촌진흥청 2010)

표준국어대사전

한겨레음악대사전

한국고전용어사전(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백과사전(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한국학 영문용어 용례사전

향토문화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강의자료

Hatim, B. 2010. 한국의국어대학교 초청 박사과정특강 발표자료 및 강의록.

각종 표준 및 지침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등의 영문표기 기준'.

로마자 표기법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roman_0101.jsp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일부 개정 2014. 10. 17, 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http://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게시물 No. 1518)

주요 한식명 로마자 표기 및 번역(영, 중, 일) 표준안 http://www.korean.go.kr/09_new/notice/notice_view.jsp?idx=1465

〈부록〉 변역 문제가 나타난 문화용어 목록

1. 영어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철번두 (鐵鞭豆)	완전음역	정보 불충분				Cheolbyeondu					
양포 (羊卵)	완전음역	정보 불충분				Mangpo					
단오강 (端午粧)	완전음역	정보 불충분						Danojang			
반차도 (班次圖)	완전음역	정보 불충분				<i>Banchado</i>					
경주산본 (熊川山本)	완전음역	정보 불충분				Jeongjoksan Sagobon					
훈신 (訓新)	완전음역	정보 불충분				Honjeon					
낙민정	완전음역	정보 불충분				Nakminjeong					
동동주 (一酒)	완전음역	정보 불충분								(Chapsal) Dongdongju	
머살문	완전음역	정보 불충분						ttisalmun			
의례 (儀禮)	완전음역	표기 오류			Euigye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the Uigwe					uigw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Uigwe: The Royal Protocols of the Joseon Dynasty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 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가야금 (伽倻琴)	완전음역. 완전음역 + 후부 요소 대음식 의미역	표기 오류				gavageum twelve-string zither		the Gavageum (a twelve- stringed traditional Korean harp)	the gavageum, the representative traditional string instrument of Korea; the Gavageum; gavageum; the gavageum the gavageum, a 12-stringed zither; the 12-stringed gavageum;		
복로 (幅路)	완전음역	표기 오류				pulley; Nokdo (pulley ladder)					Nokdo (pulley ladder)
해인사 (海印寺)	완전음역. 완전음역 + 대음식의미역. 완전 음역 + 설명식 의미역. 완전음역 + 대음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혼재				Haeinsa Temple; Haeinsa, or the "Temple of Reflections on a Calm Sea,"; Haeinsa		Haein Temple; Haeinsa;			Haeinsa Temple;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앞트기식 돌방무덤 (황구식 석실묘, 황구식 석곽묘)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a stone-lined tomb
앞트기식 돌방무덤 (황구식 석실묘, 橫口式 石室墓)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A stone chamber
오일장 (五日場)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대창마루 (大廳—)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the village markets		
누마루 (樓—)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upper floor			the floor		
화문석 (花紋石)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Flower Mats		
갓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hats
칸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room		kan			
신파 (新派)	대웅식 의미역	오역									loads of corny sentiments
아발호칭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white laundry flapping in the breeze		
석장 (石匠)	대웅식 의미역	오역							masonry		
옥탑방 (屋塔房)	대웅식 의미역	오역									a rooftop office
판작기와	대웅식 의미역	오역								gambrel-roofed	
지게	대웅식 의미역	오역							yoke		
구방공예 (御房工藝)	대웅식 의미역	경보 불충분									crafts

용어	번역양상 (유형)	번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 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해동검도	대응식 의미역	오역									Japanese fencing
국수	대응식 의미역	오역					rice noodle:		the noodle: noodles:		noodles: stir-fried noodles with vegetables; a chopped noodles dish; 잔치국수 Banquetnoodles als o known as <i>janchiguksu</i>
투호 (投槍)	대응식 의미역	오역									the game of fire trench tuho, an arrow throwing game. ; tuho
능(陵)	대응식 의미역	표기 오류				royal tomb; neung; <i>neung</i> , <i>wonnyong</i> ; royal tombs					tombs; royal tomb; the Royal Tombs
거북선	대응식 의미역	혼재						turtle-shaped ships; Godeulson, 'Turtle Ship'	turtle ship		
약과 (藥果)	설명식 의미역	오역						sweet ginger cookies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신명	설명식 의미역	오역				offering joyful moments					gasps of excitement; got excited; cheering to the sounds
가래떡	설명식 의미역	오역							rice cake slices		
금관총 (金杆塚)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역	정보 불충분			The Geungwanchong Tomb						The Geungwanchong Tomb Geungwanchong Tomb
진해군향세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역	정보 불충분						Jinhae Gunhangse Festival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역	정보 불충분						Samcheok Jeongwol Daeboreum Festival			
빈례 (飮禮)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역	정보 불충분				bilbye (reception ceremonies)					
호박죽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역	오역									hobakjuk, pumpkin soup
화성장안의제 (華城場安義祭)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역	표기 오류				"Hwasong Seongyeok uigwe" (Records of Hwasong Fortress Construction)					Hwasong Seongyeok Uigwe(華城場安義 冊), or "A Completion Report on the Building of the Hwasong Fortress"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 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 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풍물놀이 (風物—)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완전 음역 + 후부 요소 대응식 의미역	표기 오류				Farmers' Band Music (Pungmul)					pungmul nori a performance with folk percussion, known as pungmulnori; pungmulnori (folk percussion performance); a pungmulnori, a folk percussion performance; the <i>pungmulnori</i> , a performance with folk percussion instruments
향약 (鄕藥?)	완전 음역 + 대응식 의미역 + 설명식 의미역	표기 오류							Hyangyakgu gwaephang (Guide to Korean Medicine and FirstAid); 향약구급장 Emergency Remedies of Korean Medicine (Hyangyakgu gwaephang); 향약집성방 Hyangyak jipsonghang		

용어	빈역양상 (유형)	빈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 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Cumulative Guide to Korean Medicine); Korea's traditional medicine		
지신밟기	원전 음역 + 대웅식 의미역 + 선평식 의미역	표기 오류							earth god treading	jisin balbki (treading terrain spirits)	
대장급	원전 음역 + 대웅식 의미역 + 선평식 의미역	표기 오류							"Dae Jang Geum" (Jewel in the Palace); "Jewel in the Palace" (Daejanggeum)		<i>Daejanggeum</i> ; "Daejanggeum," or "Jewel in the Palace," "Daejanggeum"; "Daejanggeum" (Jewel in the Palace.)
가세주	원전 음역 + 후부 요소 대웅식 의미역	정보 불충분									traditional alcoholic drink
노래방	원전 음역 + 후부 요소 대웅식 의미역	오역									noraebang; noraebang, or singing room; <i>noraebang</i> , a Korean-style karaoke bar;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 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칼국수	완전 음역 + 후부 요소 대음식 의미역	오역									the <i>noraebang</i> <i>kalguksu</i> , a chopped noodles dish
흥부가 (興部歌)	완전 음역 + 후부요소 대음식 의미역	표기 오류									Heungboga, one of the five best-known pansori songs. heungboga "Heungbu-ga," one of the five Korean pansori plays which is based on an old folktale
봉화은어축제 (—峯熊—)	부분 음역 + (부분 대음식 의미역) + 부분 음역	표기 오류						Bonghwa Eun-Uh (Sweet Fish) Festival			
김치냉장고 (—冷藏庫—)	부분 음역 + (부분 대음식 의미역) + 부분 음역	오역									kinchi refrigerators or incubator
취위 (筵位)	대음식 의미역	오역				ancestral tablet placing					
대보름 (大上元)	완전 음역, 설명식 의미역, 완전 음역 + 후부	정보 불충분				Daeboreum (the first full moon day of the year)		Daeboreui: Full Moon: Samcheok Jeongwol	장월대보름차례 full moon memorial ritual; the first full moon of the lunar year	Jeongwol Daeboreum (First Full Moon of the Lunar Year)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요소 대응적 의미역							Daejeon Festival: Samcheok Full Moon Festival			
남산만물이	완전 음역	경보 불충분				Namsadang Nori: Namsadang Vagabond Clowns' Play					

2. 중국어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인문화홍보원
가곡	의미역, 한자어 한자역	혼재				传统歌曲			歌曲		歌曲
강강술래 (강강수월래)	음역	혼재				羌羌水越来					江江水月来
강화고인돌유적	한자어 한자역 + 대응역, 살명식 의미역	혼재				江华支石墓遗址					江华的史前石墓 遗址
거문고	한자어 한자역, 대응역	혼재				玄琴					七弦琴
지복선	의미역	혼재						乌色战船	龟船		
잡철이	의미역, 살명식 의미역	혼재							生菜		用盐腌制的小萝卜和白菜等
고를	대응역	혼재							衣带		飘带
고사	의미역, 한자어 한자역	혼재							祭祀祖先	告祀	
고춧가루	대응역	혼재				辣椒面		辣椒粉	辣椒面		
국수	대응역	혼재							面条		面
굿	의미역	혼재				巫法			神祭仪式		跳神
귀신	대응역, 한자어 한자역	혼재				邪神			魔鬼	鬼神	
기와	대응역, 한자어 한자역	혼재				盖瓦			瓦片	瓦	
김장	의미역	혼재				越冬泡菜			冬储泡菜		腌制越冬辛奇
김치	의미역, 음역	혼재				泡菜		辣白菜	泡菜		辛奇
나물	의미역	혼재							拌菜		凉拌菜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 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남사당놀이	한자어 한자역 + 의미역, 설명식 의미역	혼재				男寺堂表演					男寺堂巡国丑角 演出
대금	한자어 한자역, 대응역	혼재				大琴				长笛	
대들보	대응역	혼재							房梁		梁
대청	한자어 한자역, 대응역	혼재				大厅			前厅		
독	대응역	혼재							통일 신라 720 년에 범주사(法 住寺) 경내에 설치되어 지금 도 남아 있는 돌 향아리가 있 는데, 이는 당 대에 사용된 김 치 보관용 독 이라는 설이 유 력하다. 法住寺内一口保 存完好的好盂可 为明证. 这口石 缸是在统一新罗 720年放置到法 住寺里的, 据说 当时就是用米甬 有包裹的.		坛子
마걸리	의미역, 음역	혼재						米酒			马格利
모시	대응역	혼재				夏布		苧麻			苧麻

용어	번역양상 (유형)	번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민요	한자어 대응어, 의미어	혼재				歌		民謡			民謡
반찬	대응어	혼재							菜		小菜
배(삼배)	대응어	혼재		삼배 粗布		배를 이용해 모시를 짜며 利用织布机织成 夏布			삼배 麻布		
불고기	의미어	혼재					烤牛肉				烤肉
상	의미어	혼재		회갑상 六十大寿宴桌					주인 대신 상을 차우고 할主人 清理残局		차레상 祭礼餐桌
세배	의미어, 대응어	혼재							叩拜		拜年
신주	한자어 한자어, 대응어	혼재				神位		神主	牌位		
양반	한자어 한자어, 의미어	혼재		两班士大夫		贵族			两班贵族		贵族
온돌	한자어 한자어, 의미어	혼재					炕 (房)		地暖 (房)	火炕屋	溫突
옷고름	대응어	혼재							衣帶		腰帶
전	의미어	혼재							전 煎饼		과전葱餅
절	의미어	혼재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는 교 배례(交拜禮) 男女双方互相交 拜稍行交拜礼”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술을 올리고 절하며 축문을 읽음 初獻禮 (初獻 官領觴、跪拜、 讀祝文)					조상에게 절을 하다 向祖先行 礼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 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점	의미역	혼제		아이의 장래를 점쳤다 占卜孩 子の未来							에니메이션의 미래를 점쳐본 다면, 如果想 要预测韩国动 画的未来
젓갈	의미역	혼제				해물醬		风味醬	海鮮醬		
장월 대보름	대응역	혼제						元宵节	正月十五	元宵节	
장자	한자어 한자역, 대응역	혼제				亭台			亭子		亭子
제사	한자어 한자역, 의미역	혼제		祭祀		祭祀		祭祀	祭祀		祭祀
칸	대응역, 의미역	혼제				間					김치를 보관하는 칸 辛奇保管室
탈	대응역, 의미역	혼제				덧버기(탈놀이) 와 탈미(인형극) 假面具和水戱戔 치용탈 处容假面具					캐릭터 탈인형 动画形象服饰的 人偶
택견	대응역, 음역, 오역	혼제				脫拳				跆拳道	跆拳道
판소리	의미역, 음역	혼제				傳統歌曲			盤索里		
피리	대응역	혼제				笛				笛	笛子
한산모시	한자어 한자역+대응역	혼제				韓山夏布		韓山苧麻			
한산모시짜기	한자어 한자역 +대응역+의미역	혼제				韓山夏布絞造					韓山苧麻絞織
한지	한자어 한자역, 의미역	혼제							高麗紙	韓紙	韓紙

용어	번역양상 (유형)	번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 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이문화공역원
행차	의미역	혼재						出巡	駕臨		
김장 김치	의미역	혼재		泡菜		越冬泡菜					越冬泡菜
김장문화	설명식 의미역, 의미역+대응역+ 한자어 대응역	혼재				制作越冬泡菜 文化					越冬泡菜文化
분청(분청사기)	한자어 한자역, 대응역	혼재			粉青沙器			粉青陶器			
불교회화	한자어 대응역, 대응역	혼재			佛教會畫						佛畫
사리내함	대응역, 오역	혼재			舍利函				舍利內壺		舍利具
신명	설명식 의미역, 의미역	혼재				熱情和兴致			精彩		精彩의压轴
약과	한자어 한자역, 의미역	혼재							薔麻花		药果
위패	대응역	혼재							牌位		位牌
조각보	설명식 의미역, 의미역	혼재							碎布拼接起来制 作衣服或被子		碎布包袱皮
관	설명식 의미역, 음역(문자상기)	혼재				따라서 놀이관 은 철저히 열린 관이 된다 因此完全是开放 式的游乐场					‘털관이란’, ‘놀 관’은 ‘살판’은 모습을 의미 脚吧 (韩语发音 Ttwilpan) 是 指~; “玩吧” (Nolpan) “是 指~; “生活吧 (Salpan) “是 指祥子

용어	빈역양상 (유형)	빈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의문화정보원
한(恨)	설명식 의미역, 의미역	혼재				당시 사회에서 친대 반던 현과 양반사회의 부 도덕성을 높이 를 통해서 비판 하며 풍고 用讽刺的手法宣 泄当时处于社会 底层人们的不平 和抑郁, 批判和 抨击两班阶级的 无耻。				위인스로 끌려 간 한스녀의 한 이 일제의 옥일 승천기를 짓밟 는 모습 被强立到了慰安 所, 充满怨恨的 她用脚踢着旭 日升大旗。 운평적 만남이 송화에게는 한 으로 남게 되었 던 것이다 这一命运般的相 遇对松花来说变 成了一种怨恨。	
마당	대응역, 의미역	혼재							院落	사극마당 历史剧村	광주디자인비엔 날레 전시관앞 마당 光州设计双年展 展馆前广场
풍류	대응역, 한자어 한자역	혼재								风致	风流

3. 일본어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인문화보원
거문고	음역, 한자역	혼재			コムンゴ	玄琴					コムンゴ
관아	대응역, 한자역	혼재							官庁		官衙
굿	음역, 음역(설명식 의미역)	혼재				クツ			クツ (巫女の儀式)		グ
단소	한자역, 한자역(음역)	혼재				短簫				短簫(タンソ)	
대금	한자역, 한자역(음역), 한자역(설명식 의미역)	혼재			大琴(デクム)	大琴				大琴(デアグム)	大琴 (大きな横笛)
대보름	설명식 의미역, 음역	혼재				陰曆正月15日				テボルム	
부채	대응역, 음역	혼재								うちわ	フチェ

용어	번역양상 (유형)	번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피문화관광
사당	한자역	혼재				祠堂			祠堂		
상	대응역	혼재							お膳	食卓	
笙簧	한자역(음역), 한자역	혼재			笙簧 (センフアン)					笙簧	
선비	음역, 음역(설명식 의미역), 음역(대응역)	혼재			ゾンビ				ゾンビ (学識はあるが官 職につかない人)	ゾンビ(学者)	
설날	대응역, 음역	혼재								正月	ソルサル 旧正月
세배	설명식 의미역, 대응역	혼재							新年の挨拶		お辞儀
송편	설명식 의미역, 음역	혼재							ゾンビョンという餅		ゾンビョン
수저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	혼재							スプーン	スプーンと 箸のセット	

용어	빈역양상 (유형)	빈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마다총보인
송배문	한자역 (찰, 알러진 한자역), 한자역	혼재							崇禎門 (南大門)		崇禎門
시루떡	실명식 의미역, 음역	혼재							平なく四角い コシギ餅		シルトック
식혜	음역(설명식 의미역), 음역	혼재							シッケ (甘酒に似たもの)		シッケ
신주	대응역, 한자역	혼재				位牌			神主		
실향민	한자역, 설명식 의미역	혼재							失郷民		故郷を失った 家族
양반	한자역, 음역, 한자역(설명식 의미역)	혼재				兩班			ヤンバン		兩班 (貴族階級)
일제강점 기	한자역, 설명식 의미역	혼재				日帝時代			日本の植民地時代		日本統治 時代

용어	번역양상 (유형)	번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세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피문화교류원
임진왜란	한자역, 설명식 의미역, 한자역(설명식 의미역)	혼재				壬辰倭亂役			文祿・慶長の役 (1592~1598)		壬辰倭亂 (文祿・慶長の役)
장구	음역, 대응역	혼재			チャン	鼓					チャン
젓갈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	혼재				塩辛			海産物の エキス		
정월 대보름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 대응역+음역	혼재						小正月	旧曆 1月15日	正月デボルム	
정자	한자역, 대응역	혼재				亭子			庵		
차례	한자역, 대응역	혼재							茶礼	祭祀	法事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 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운문화재단
창덕궁	한자역(음역), 한자역	혼재				昌徳宮 (チャンドグン)			昌徳宮		
추석	대응역, 한자역(설명식 의미역), 한자역	혼재				秋夕			秋夕 (旧曆 8 月15日)		中秋節
치마	음역(설명식 의미역), 음역	혼재							チマ (スカート)		チマ
탈	대응역, 음역	혼재				仮面				仮面	タル
탈놀이	대응역 + 대응 역, 음역	혼재				仮面遊び					タルノリ
탕	설명식 의미역, 한자역(설명식 의미역)	혼재			煮込み スープ				湯 (魚や肉類などを入 れない祭祀用の スープ)		

용어	번역양상 (유형)	번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인문화재단
판소리	음역, 음역(설명식 의미역), 음역	혼제				반소리			반소리 (伝統歌唱)		반소리
폐백	한자역(설명식 의미역)	혼제							폐백(新婦が舅・ 姑に初対面の儀式 を行う)とき進上するな つめ・ホシシなど)		폐백(婚禮のあとに 新婦が舅と姑にまみ え、ナツメなどの進 上物を捧げること)
한가위	한자역, 음역	혼제								秋夕	한가위
한과	설명식 의미역, 한자역	혼제							伝統のお菓子		韓菓
항아리	음역, 대응역	혼제							한아리		甕
해인사	한자역, 음역(한자역)	혼제				海印寺			헤인사 (海印寺)		海印寺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행차	한자역, 설명식 의미역	혼제						行次	訪れ		
효	대응역	혼제				孝行心			親孝行		
훈민정음	한자역(음역), 한자역	혼제				訓民正音(フ ンジンジョンナム)					訓民正音
흥부가	한자역	혼제				興夫歌					興南歌
복주머니	음역(대응역), 설명식 의미역	혼제						ボクチュモニ (巾着袋)			幸福の巾着袋
사대부	한자역, 설명식 의미역, 한자역(설명식 의미역)	혼제		士大夫					支配層		士大夫(儒教的文 官官僚)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외문화홍보원
상소 (上疏)	한자역, 설명식 의미역	훈제				上疏			訴え		
신명	대응역	훈제				楽しさ					興趣
장터	대응역	훈제						市場		市	
판	음역(설명식 의미역), 음역	훈제				バン(公演が行 われる空間)					バン
화원 (畫員)	대응역, 한자역	훈제									画員
마당	음역, 대응역, 설명식 의미역	훈제				マダン			庭	村	広場
명당	한자역(설명식 의미역), 한자역	훈제				明堂 (風水の 吉祥地)			明堂		

용어	변역양상 (유형)	변역양상 (특징)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에버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민속촌	해운문화공고원
온돌방	설명식 의미역 + 음역 + 대응역 음역 + 대응역	혼제							床暖房の オンドル部	オンドル部屋	
체	대응역. 음역 (설명식 의미역)	혼제							母屋		チェ (主人の座敷)
탈춤	음역 (대응역) 음역 (설명식 의미역)	혼제							탈춤(仮面劇)		タルチュム (仮面踊り)

연구 책임자: 김 혜 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신 지 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 영 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연구 보조원: 이 은 용 (이대 겸임교수)
장 애 리 (이대 겸임교수)
한 미 선 (이대 BK21 연구교수)
박 현 주 (이대 박사과정)
강 려 영 (이대 박사과정)
전 양 주 (이대 박사과정)
최 효 은 (이대 박사과정)

담당 연구원: 박 주 화(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김 주 형(공공언어과 영어 번역)
김 해 솔(공공언어과 중국어 번역)
이 은 조(공공언어과 일본어 번역)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발 행 인	민 현 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전화: 02-2669-9722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14년 12월 13일
발 행 일	2014년 12월 13일
인 쇄	제일문화사